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53호
2023년 9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uaa.org

news@snuuaa.org

남가주 동문 300여명...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우정탑 쌓아



서울대 남가주 지부가 지난 9월23일 부에나파크 시에 소재한 랠프 클라크 파크에서 동문과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 피크닉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동문과 가족들은 아름다운 남가주의 가을 하늘 아래서 재미있는 게임과 맛있는 바비큐를 즐기며 동문 간의 우정과 모교 사랑을 흠뻑 만끽했다. [남가주 지부 제공]

전 미주 동문 최신 주소록 DB로 만든다

각 지부 보유 주소록 바탕해 미주 네트워크 구축하기로

미주 동창회(회장 이상강)가 미주 동문들의 주소를 비롯한 연락처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로 했다.

김경숙 사무총장은 “미주동창회보가 매월 8000부 넘게 발송되는데 각 지부 동문 숫자와 발송 부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며 “업데이트 된 주소에 바탕해 동문 주소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남가주 지부 A동문은 2002년 이후 회사에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집에서는 부친의 이름으로 2부의 동창회보를 받고 있다. 2009년 부친이 타계했고 2020년 자신은 퇴직해서 한 부로 줄이려고 두 번이나 수정 요청을 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대 동문 4명이 근무했던 남가주 B사의 경우 동문 4명의 이름으로 여전히 동창회보가 배달되고 있다. 4명 중 한 명은 한국으로 귀국했고 다른 한 명은 타계했으며 또 다른 두 명은 퇴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동문의 경우는 더욱 복잡하다. 동부에서 공부를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타주로 이주했고 수정 요청을 했지만 새 주소와 구 주소, 양쪽으로 배달되고 있

다. C동문의 정보 수정 과정에서 친구 구분이 헷갈려 두 주소를 모두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창회보 배달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20년 넘게 LA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자녀를 모두 대학에 보낸 D동문의 경우 한국으로 귀국한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전 직장으로 연락이 가고 있다.

D동문은 그나마 페이스북을 통해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SNS를 전혀 하지 않는 동문들은 감감 무소식인 셈이다.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했던 E동문의 경우는 좀 다르다. 80세가 넘어서 은퇴한 후 장남이 거주하는 필라델피아로 이주했지만 급하게 떠나는 바람에 새 주소를 알리지 않아 그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동문들이 많다.

기존 동문들은 물론 새로운 동문들의 동창회 유입을 위해서는 흡인력 있고 유

용한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미주 동창회 한 임원은 “지난 수 년간 별세 동문, 귀국 동문은 물론, 이사나 퇴직 등 변경 사항이 매우 쌓여있던 탓에 제대로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았

다”며 “그동안 집행부 임원들이 열심히 업데이트 작업을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매우 부정확한 상태여서 이번 17대 집행부가 안정적인 미주 동창회 운영을 위해서 대대적인 구축 작업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미주 동창회는 동문 데이터베이스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우선, 동문 주소 실태 파악을 위해선 각 지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미주동창회는 지부별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구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할 것인지 일괄적으로 중앙집중식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현재 논의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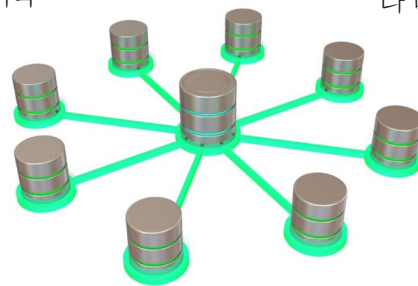
김경숙 사무총장은 “절차나 단계는 작업 진행에 따라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 지부들도 업데이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미주 동창회 차원에서 전 미주 동문들의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행부는 이번 작업 중이라도 총동문회 사이트(www.snuuaa.org/main)를 통해 동문들이 자신의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되면 자신의 정보 수정은 물론, 인증된 동문들에 한해 지역별 동문들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전 미주 동문 교류는 물론 비즈니스에도 도움을 주는 등 명실상부한 미주 동문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강 미주동창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늦어도 연말까지는 정확한 동문들의 숫자를 파악하고자 한다”며 “각 지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병희 편집위원



미주 동창회가 추진하는 데이터베이스 개념도. 각 지부의 데이터베이스에 바탕해 구축할 계획이다.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Tel: 818-395-1967 Email: snuaausa17@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김성열 동문 부부, 서울대 발전공로상 수상

서강대 명예박사 학위도
모교에 100만 달러 기부
치과 기구 특허만 30개

워싱턴주 김성열(치대 61) 동문과 부인 전후자씨가 모교가 주는 제16회 서울대 발전공로상을 수상했다. 지난 8월 28일 모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김 동문이 지난해 모교 치의학 대학원에 치과학술 연구기금으로 100만 달러를 기부하고 미국 지역사회에서 의료 및 봉사활동을 펼친 공로를 치하하며 발전공로상을 수여했다.

김 동문은 이날 수상소감에서 “처음 미국에 가서 서울치대 나왔다고 하면 ‘코리아가 어디 있냐’고 했는데, 지금은 치대 교수님들이 좋은 연구를 많이 하신 덕에 ‘좋은 치과대학 나왔다’고 한다”며 “모교 치대 교수님들이 더욱 세계 치과계에 공헌하길 바라는 마음에 기부했다”고 말했다.

김 동문은 며칠 앞선 8월 22일에는 서강대에서 명예 공학박사 학위도 받았다. 환자들이 보다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새로운 치과 기구를 10개 이상 발명해 자신이 설립한 회사 컨택이지(ContactEZ)를 통해 세계 92개국에 공급하는 등 치의학공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한 명예 박사학위였다. 김 동문이 서강대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것은 부인 전후자씨가 서강대



서울대 발전공로상을 수상한 김성열 동문(오른쪽)과 부인 전후자씨. 부인은 서울대 출신이 아닌에도 발전공로상을 함께 받았다.

출신으로 부부가 자신들을 길러준 모교에 ‘통큰 기부’를 해왔기 때문이다.

1975년 미국으로 이민 온 김 동문은 워싱턴주에서 치과병원을 개업해 여든이 넘는 지금까지도 일주일에 3일은 치과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나머지 4일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새 치과 기구 발명을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임플란트와 크라운 기술 등 그가 낸 발명 특허는 30개 가량으로 그는 지난 2006년 남들은 은퇴를 생각하는 65세 나이에 자신의 특허기술을 제품화하는 회사 컨택이지를 창업했다. 회사는 부인이 운영하고 김 동문은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데 매진해 2019년에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치과 전문가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렇다고 그의 도전이 치과의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운동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도 즐긴다.

스키를 좋아해 전문 스키 강사 자격증(PSIA)을 취득해 1984년부터 1992년까지 마운트 후드에서 스키 강사로 활동했고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 미국 콜롬비아 리그 축구심판으로 활동했다.

2006년에는 지역 댄싱 경연에 나가 챔피언에 등극했고 2017년엔 클라크 카운티 페어에서 미국 국가를 독창하는 가수 선발 오디션에 참가해 최종 선발되기도 했다. 덕분에 그는 지역사회에서 ‘노래하는 치과의사’로 유명해지기도 했다.

김 동문의 도전 정신은 아들에게도 이어져 1인용 2륜 전기차를 개발한 리트 모터스의 CEO 다니엘 김이 그의 아들이다. 다니엘 김은 자동차와 오토바



서강대 명예 공학박사 학위를 받는 김성열 동문(오른쪽).

이의 장점을 결합한 전기차 쿠보 C1을 개발해 뉴욕타임스 등의 큰 주목을 받았으며 현재 출시를 앞두고 차량 선주문을 받고 있다.

김 동문은 사업을 하면서 번 돈을 모교는 물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나누는 일에도 아낌이 없다. 밴쿠버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을 일 년에 한 번씩 스폰서하고 자신과 부인이 강의했던 클라크 칼리지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메디칼 센터 대합실에는 그랜드 피아노를 사주고 암센터에는 탈의실을 만들어줬다.

김 동문은 인터뷰에서 “힘이 다할 때까지 모교에 대한 기부와 새로운 치과 기구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아내의 이름을 딴 ‘후자전김 콘서트홀’을 지어 주는 것이 마지막 꿈”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뉴욕 에드워드 강 동문 부부 재단 학생 10명에 장학금 5만달러 수여

뉴욕동창회 제32대 회장을 지낸 에드워드 강(사대 60) 동문이 설립한 에드워드 & 인애 강 재단이 지난 8월 2023-2024학년도 장학생 10명을 선발해 각각 5000달러씩, 5만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뉴욕에서 공인회계사로 일하다 은퇴한 강 동문은 2017년 에드워드 & 인애 강 재단을 세워 올해로 7년째 한인 꿈나무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그동안 수여한 장학금 규모가 60만 달러에 달한다.

공식 선발하는 장학생 외에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나 자선단체 등 그의 지원을 받은 사람은 90명이 넘는다.

강 동문은 장학사업 뿐 아니라 학교와 병원에도 해마다 빠지지



에드워드 강 동문과 부인 강인애씨.

않고 후원해 줄리어드 음대(1만 달러)와 예일대 한국학재단(1만 달러),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3000달러), 서울대(5000달러) 등을 포함 올해 자신의 재단을 통해 8만달러 이상을 사회에 기부했다.



이강원(공대 66) 동문 부부가 지난 6월 열린 한혜원 동문의 은퇴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왼쪽부터 이강원, 한 동문 남편 한수웅(의대 55), 한혜원, 이 동문 부인 홍지복(간호 70) 동문.

‘간 박사’ 한혜원 동문, 종신교수직 은퇴

미주 한인 커뮤니티에서 ‘간 박사’로 유명한 한혜원(의대 55) 동문이 지난 6월 필라델피아의 토마스 제퍼슨 의대 종신교수직에서 은퇴했다. 한 동문은 동창 회보에 오랜 취미인 오페라를 즐기고 늘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를 더 연습하겠지만 명예교수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티칭과 멘토링, 연구도 계속할 예정이

라고 말했다.

한 동문은 B형 간염과 간염치료의 권위자로 미 전역 450개 이상의 한인교회를 방문해 2만 5000명이 넘는 한인에게 B형간염 혈액검사를 해 B형 간염퇴치에 앞장 서 온 공로로 대한민국 목련장과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상 등 많은 상을 받았다.

미주 동문 66여명 ‘홈커밍데이’ 모교 나들이

골프, 음악회 등 특별행사에도 초청돼
남가주 간호학과 69학번만 10명 동행

미주 동문 66명이 10월15일 모교에서 열리는 서울대 홈커밍데이 행사에 참여키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특히 16일 공식 일정에 이어 23일까지 진행되는 한국 관광투어에도 27명의 참석이 확정됐다. 전야제부터 9박 10일의 짧지 않은 스케줄이다.

이들을 맞는 모교와 총동창회의 일손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홈커밍데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미주 및 해외에서 참가하는 인원의 숫자 등 호응 여부에 촉각을

세웠지만 다행히 미주 여러 지부에서 인원 통보가 이어지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멀리서 오는 손님들에 대한 준비만큼 기대도 크다.

이번 방문단에는 이상강 미주동창회장 을 비롯, 김경숙 사무총장, 백옥자 총무 국장이 참가한다.

이외 김경무 남가주 회장, 황효숙 차 기 미주동창회장이 동참하며 남가주 간 호학과 69학번 10명이 비행기에 오른다. 방문단 중 최연장자는 송창원(문 53),

벤자민 홍(문53) 동문이고 뉴욕의 이영 주(농생83) 동문이 최연소 참가자가 된다. 참가 지역도 남가주 지부를 비롯해 뉴욕, 하트랜드, 일리노이, 텍사스, 워싱턴DC, 미네소타 등이다.

한편 ‘2023 서울대학교 홈커밍데이 동 문 나눔 한마당’으로 명명된 이번 행사는 14일 전야제, 15일 본 행사, 16일 골프 라운딩으로 이어지며 미주 동창회가 기획한 모국 방문 프로그램의 일환인 ‘서해 맛집 관광 투어’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된다.

또 미주동창회 방문단은 행사 당일 15 일 오후 2시 유홍림 총장실을 방문해 간담회도 갖게 된다.

다음은 세부 일정이다. 전야제(14일)는

금난새 동문이 지휘하는 음악회로 삼익아트홀에서 열린다. 전야제 행사에는 총 장을 비롯한 보직 교수, 총동창회 임원, 관악경제인 회원, 미주동창회 동문 등 100명이 참석한다. 음악회는 오후 8시에 마무리 된다.

홈커밍데이 본 행사는 서울캠퍼스에서 15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다. 오픈 행사로 동문과 가족, 재학생, 교직원 등 2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총장실 예방, 캠퍼스 투어, 재학생 동아리 공연 관람, 음악회 등이 포함된다. 16일 진행될 골프 행사는 총동 창회 집행부, 미주동창회 동문, 관악경제 인회원 등이 참석해 남서울CC에서 개최 된다.

미주동창회, 이병준 동문 모친상에 조기 애도



미주동창회(회장 이상강)가 지난 9월 9일 열린 남가주 이병준(상대 55) 동문의 모친 장례식에 조기를 보내 어머니를 떠나 보낸 이 동문의 슬픔을 위로 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 동문은

미주동창회 제3대 회장을 지냈다. 미주동창회는 동문들의 요청이 있으면 동문 본인은 물론 가족상에도 조기를 보낼 계획이다.

▶문의: (818)395-1967(백옥자 총무국장)

황효숙 차기회장, 박현아 동문 감사 추천

미주동창회 제 18대 차기 회장에 선출된 미네소타 지부의 황효숙(사대 65) 동문이 미주 동창회 18대 감사로 박현아(공대 88·사진) 동문을 추천했다. 박 동문은 재무학 박사로서 미네소타



에 거주하며 현재 뉴욕시립대 브루클린 칼리지 재무학과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이다.

크리티컬 파이낸스 리뷰, 퓨처 마켓 저널, 이머징 마켓 리뷰 등 재무 투자 관리와 관련 다수의 유명 저널에 기고 했다. 동문회 활동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꾼이다.

회칙에 따르면 18대 감사는 17대가 2년차에 들어가는 해부터 공동 감사를 하도록 돼있다.



80에 드론 즐기는 이수암 동문 미주동창회 종신이사(실버) 가입

이수암(공대 62·조지아 지부·사진 오른쪽) 동문은 최근 종신이사(실버)가 됐다. 임 동문은 학부에서 섬유공학을 전공했고 지난 1972년 미국에 와서 조지아텍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존슨앤드존슨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30년간 엔지니어로, 관리자로 일하다가 2006년 은퇴했다.

그는 은퇴 후 모교와 조국으로부터 받은 혜택을 갚고 조국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미에서 한국으로 돌아가 삼양사 그룹, 중소기업인 메타바이오메드(METABIOMED)에서 기술 고문(Technical Consultant)으로 일하기도 했다. 그는 2013년에 미국에 돌아와 현재까지

은퇴 생활을 누리고 있다.

임 동문은 특히 젊어서부터 좋아했던 하이킹, 워킹, 여행, 골프를 마음껏 즐겼으며 최근에는 드론을 즐기기도 시작했다.

가족으로는 사랑하는 부인과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애플에서 근무하고 있는 큰 아들과 의사로 FDA에서 일하고 있는 둘째 아들이 있다.

그는 “지금까지 변화와 긍정을 생활 모토로 노력하며 살았다”면서 “세상 모든 것은 변하니깐 항상 변화에 대처하고 자신도 변화해야 한다. 항상 긍정적으로 기쁘게 살아왔다”고 전했다.

장병희 편집위원

June Fashion 회장 이준행 동문

“끝없는 도전과 넉넉한 나눔으로 살아온 94년”

한 평생을 성공한 사업가로, 훌륭한 남편이자 존경받는 아버지로, 한결 같은 길을 걸어온 이준행(공대 섬유공학 48) 동문의 나이는 올해 94세다. 어디서나 아낌없이 베풀기를 즐겨하는 이준행 회장의 지나온 삶은 수많은 인생 후배들의 귀감이 된다.

평생 가발과 함께 살아온 그의 인생은 대한민국 가발 수출 역사 그 자체다. 뉴욕 롱아일랜드 벨모아 자택을 찾아가 그의 어린 시절

얘기부터 들어보았다.

“저축 은행에 근무하신 아버지는 자식들을 무척 엄하게 키우셨어요. 난 7남매 맏이라서 더 심했지. 아침에 일어나면 방안에 붙인 사진 속 히틀러와 1분간 눈싸움을 하고 나서야 등교가 가능했어요. 내가 중2 때,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은 채로 바둑을 배웠는데 잠깐 졸면 바로 따귀가 날아왔어.”

1929년 서울 신설동에서 태어난 이준행은 이렇듯 엄한 부친 밑에서 ‘대통령’을 꿈꾸며 자랐다.

서울대 섬유공학과 졸업 후 상공부에서 4년간 근무한 뒤, 1957년 유학길에 오른 이 동문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1년간 기계 훈련을 받고, 영국 레스터(Leicester)에서 2년간 유학했다.

“런던에서 1시간쯤 떨어진 레스터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향수병이 심했어요. 한국에 편지를 보내면 한 달 이상 걸려. 집이 얼마나 그리던지 6시에 저녁을 먹고 서쪽으로 무작정 걸었어요. 서쪽 끝에 다다르면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가까워진다는 생각으로 걷고 또 걸었지. 어느 날은 저녁 6시에 나가서 새벽 1시까지 걷기도 했고.”

1960년대 초 한국은 공인된 가난한 나라였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먹고살기 힘든 시절에 수출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 이 동문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양말 수출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양말과 스웨터 종목으로는 오히려 받기가 힘들었다. 그는 아버지 친구분이 하는 가발 수출 일을 도와주다가 외국인 바이어와 만나게 된다. 영어 등 외국어가 가능한, 유럽 유학을 다녀온 그의 능력은 이내 빛을 발했다.

“한국산 인모 가발은 미국에서 최고 인기였어요. 어느 날 회사에 오더를 주던, 미국 가발업계 최고의 수입 기업이 찾아와서 가발 만드는 공장을 가보고 싶대. 그런데 말이 공장이지. 집에서 동네 아줌마 몇 명이 수공으로 가발을 만드는데 차마 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더라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거절했어요. 그래도 막무가내로 보여 달래. 할 수 없이 데려갔어. 그런데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에 믿음이 간다고 말하더라고. 그리고 더 많은 오더를 주고 공장 설립 지원을 해줄 테니까 날 보고 가발 공장을 세우라는 거야.”

바이어 도움으로 공장을 짓고 오더가 안정적으로 들어오자, 수출을 장려하는 정부의 방침으로 사업은 날이 발전했다.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만 600여 명이 될 정도로 규모도 커졌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잘나가는 사업을 접고 뉴욕으로 오게 된다. 막내 아들을 유학 보내게 되면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된 것.



이준행 동문은 유럽 유학후 미국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가발업계의 산증인이다. 그는 미주동창회보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유럽 유학 후 가발사업에 뛰어든다 뉴욕 최고의 가발회사 준이 커머셜 컴퍼니 이 동문은 뉴욕 동창회의 역사이자 산 증인

그는 뉴욕에 오자, ‘준이상사’를 설립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사실 미국에 와서 성공한 한인 사업가 90%는 가발업으로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0년대에는 유학생들 너도나도 가발업에 뛰어들어, 말 그대로 깃대만 꽂아도 부자가 되었다.

1971년 뉴욕 맨해튼 27가에 준이 커머셜 컴퍼니(June Commercial 11 Co.)를 세운 그는 미주 한인 가발사업계에서 개척자나 다름없다.

그의 가발 사업은 탄탄대로를 걸었다. 준이상사를 이끈 이준행 회장의 가발도매업 역사는 훗날 미용 전문 잡지에 6회

에 걸쳐 연재되기도 했다.

동창회와는 무관하게 지내던 2002년 어느 날, 신문에 같은 기계과를 다녔던 친구가 서울대 총동창회장이 됐다고 기사가 났다. 임광수 회장은 2002년부터 서울대 총동창회장으로 12년간 재임하며 2011년 10월 시가 1,000억 원 규모의 서울대 동창회관(장학빌딩)을 건립했던 분이다.

학교 일에 관심이 적고 후배들을 위한 지원에도 인색하다는 뜻으로 흔히들 서울대 출신들을 ‘모래알’이라고 불렀으나 임 회장이 총동창회장을 맡은 후로는 ‘시멘트 결속력’으로 바뀌었다고 한

다. 이 동문은 임 회장의 영향을 받아 뉴욕 동창회 일에 뛰어들었다.

“임 회장은 우리 동네에서 하숙했어. 우리는 하루도 안 빼고 5시에 일어나 창신동 뒷산에 올라가 운동했던 사이야. 6.25가 나는 바람에 임광수는 청주로 피난가고, 난 미국에 오면서 소식이 끊겼어. 동창회에 전화해서 임광수에게 ‘나 이준행이다’라고 말하자 무척 반가워하더라고. 그 뒤부터 동창회 일을 시작한 거지.”

임광수 회장이 한국에서 서울대 총동창회 장학빌딩을 지었을 때 이 동문은 20만 달러를 기부했었다.

매년 6% 배당금이 나오자, 뉴욕동창회 5명에게 장학금을 주다가 장학생 자격이 서울대 재학생으로 제한되면서 2015년 후세를 위한 준이(June)장학재단을 따로 만들었다. 그는 60세 이상 동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 ‘골든클럽’을 만들기도 했다. 그의 아낌없는

“동창회일 하려면 부업 아니라 본업처럼 해야”



이준행 동문 뒤로 그가 즐겨 타며 낚시를 했던 보트가 보인다.



증손자 사진을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짓는 이준행 동문.

나눔은 두 단체를 통해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부사장을 지낸 이견혁씨가 그의 아들이다. 부친에게서 배운 대로 그 역시 자녀들에게 엄격한 아버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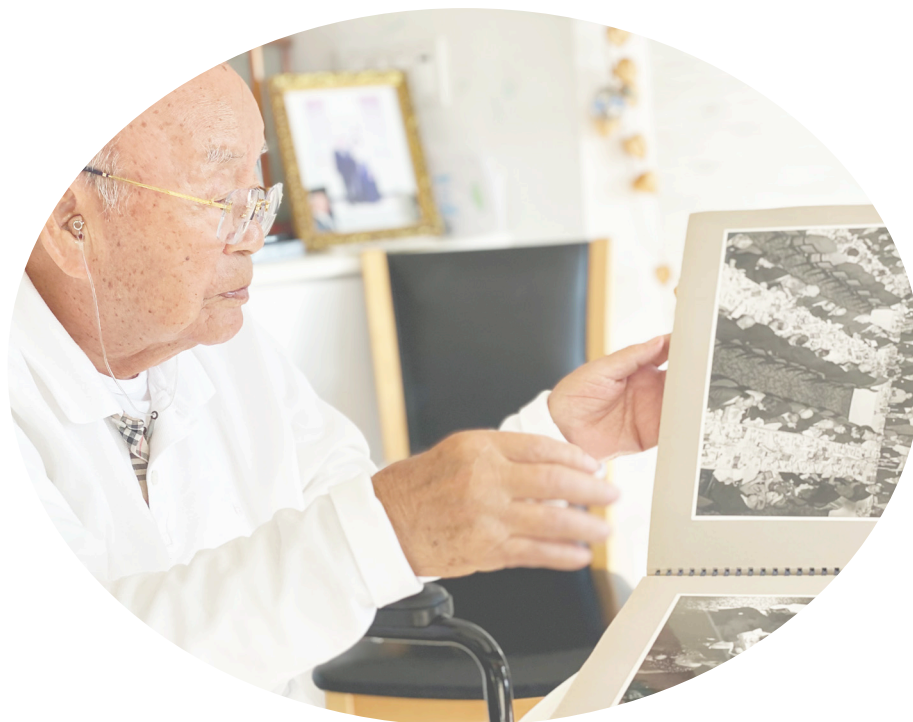
조기교육이라는 말도 생소했던 1974년에 10살짜리 막내 아들을 영국으로 보내어 공부를 시켰고, 그 아들은 훗날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소중한 인재가 된다.

김 동문의 막내아들 이견혁씨는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등을 지내다가 현재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다.

이 동문은 슬하에 세 아들을 낳고 손자 1명, 손녀 3명을 두었다. 손자는 필라델피아 마취과 의사다. 코넬대에서 패션·매니저먼트를 공부한 큰 손녀는 이태리 구찌에서 일하다가 이태리 남자와 결혼했다. 이 동문은 증손자 사진만 봐도 흐뭇한 표정이 절로 나온다 고 한다.

이 동문은 지난 2019년 아내 이세영씨와 사별했다. 그의 아내는 둘째 아들이 병으로 사망하자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다고 한다.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장남(이건호)의 권유로 77세에 미주한인서화협회에서 서화를 배우자 우울증이 사라졌다. 효당 이세영씨는 2014년 결

63년 함께 한 아내 떠나고 1년간 병원 생활 동창회장 최소 6년은 해야 동창회 발전



미용 전문잡지에 6회에 걸쳐 연재된 이준행 회장은 가발수출의 산증인이다.

혼 60주년 기념 회혼례를 기념하여 전시회도 가졌다. 이날 하객들의 축의금 5,200달러에 같은 금액을 보태 동창회 장학위원회에 기증했다.

“아내는 서화전하고 일 년 뒤에 세상

을 떠났어요. 벌써 5년이나 지났네. 내가 22살에 데려와서 63년을 같이 살았어. 나한테 말도 없이 그렇게 훌쩍 떠나면 안 되는데 날 앞세우고 건방지게 나보다 먼저 가버렸어.”

아내가 떠나자 그는 기운을 잃었다. 일 년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달에 퇴원했다. 현재는 휠체어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 달 안에는 혼자 걸을 수 있을 거라며 그는 활짝 웃는다. 석양을 받아 더욱 빛나는 뒷마당 보트는 광어잡이에 나서던 활기찬 주인의 손길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원로와의 대화는 원로만이 가진, 지난 그의 삶 속에 축적된 통찰력과 철학적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채우고도 넘쳤다.

마지막으로 동창회에 바라는 말씀을 부탁하자 거침없는 의견을 주신다. 그만큼 동창회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구나 싶다. 주신 말씀마다 가슴으로 와닿는다.

인터뷰 내내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미소 짓던 큰 어르신 이준행 동문, 어눌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가 들려준 얘기들은 우리 모두가 앞으로 경험할 인생 여정에 대한 현명한 조언과 지혜를 얻기에 충분하였다.

“동창회장을 부업이 아닌 ‘본업’으로 생각했던 서울대 총동창회 임광수 친구의 말이 떠올라요. 45대 뉴욕 동창회 회장 자리는 1년 가지고 안 돼. 임광수는 12년을 했어요. 그래서 동창회관도 지었지. 임원도 최소 6년은 해야 해. 그래야 동창회도 발전되고 모교가 더 발전할 수 있어요.” 글·사진=이영주(농생대 83)

원고 모집합니다

글의 양 500단어(글자수 2000자) 내의 글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snuaausa17@gmail.com

미주 동창회는 미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29개 지역 동창회의 연합체입니다. 각 지역 동문들이 직접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동창회보를 통해 서로의 소식을 나누며 서울대인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미주 동창회의 사명입니다. 알리고 싶은 얘기는 주저 없이 보내주시요. 지역 소식은 물론 화제의 동문, 원로 초대석, 나의 건강 비결, 취미, 여행기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창화 동문 부부, 한국전 전사자 고향찾아 4만 마일

참전 용사에 감사 여정 3년째
33개주 초교에 16만 달러 기부
내년에 50개 주 마치는게 목표

뉴욕 구창화(미대 응용미술학과 65) 동문 부부가 한국전 참전 용사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미 전역의 초등학교를 찾아다니며 감사를 전해 화제가 되고 있다.

구창화 동문이 남편 구성열씨와 함께 향하는 곳은 전사자들의 고향이다.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고향을 찾아가 전사자들의 이름으로 지역 초등학교 도서관에 책과 기부금을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전사자를 기리고 한국전의 뜻깊은 역사를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10월 버몬트주 리즈보로 센트럴 스쿨을 시작으로 지난 8월 19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식스 마일 초등학교(Six mile Elementary School)까지 총 33개 주 33개 학교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구 동문 부부는 식스 마일 초등학교 방문을 마치고 플로리다, 아칸소, 켄터키주 지역으로 이어지는 전사자의 고향 방문 일정을 28일까지 진행했다.

구 동문의 남편은 한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사자 명단을 일일이 살펴봐 마음에 와 닿거나 특별한 이야기가 있으면 주마다 한 명씩 선정해 그들의 고향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있다”며 “켄터키주까지 가면 36개 학교에 기부금을 전달하게 되는데 내년까지 50개 주를 모두 마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일례로 식스 마일 초등학교의 식스마일 지역은 ‘찰스 헤이워드 바커(당시 18세)’ 일등병의 고향이다.

바커 일등병은 미군 제7보병사단 소속으로 경기도 연천군 천덕산 주변에서 중공군과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졌던 ‘폭잡힐(Pork Chop Hill)’ 전투에서 마지막까지 싸우다 전사한 청년이다.

구씨는 “바커 일등병의 이야기를 살펴보니 한국전에 참전하려고 부모 몰래 서명을 해서 15살 때 입대를 했다고 하더라”며 “그런 아이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었는데 어떻게든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19일 구창화(오른쪽) 동문 부부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식스 마일 초등학교를 방문, 멜리사 테리교장에게 기부금과 함께 찰스 헤이워드 바커 일등병의 명패를 전달하고 있다. [식스 마일 초등학교 제공]

구 동문 부부는 세 가지 선물을 들고 초등학교를 방문한다. 전사자를 기리기 위해 이름이 새겨진 명패, 한국전 역사가 담긴 책 그리고 기부금(5033달러)이다.

초등학생들을 만나 한국전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전사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은 이들에게 가장 보람찬 일이다.

이번에 켄터키주 일정까지 마치게 되면 36개 초등학교 도서관에 총 18만1188달러를 전사자들의 이름으로 기부한 셈이 된다.

구 동문 부부는 지난 2019년에 6.25 재단(625foundation.org)을 설립했다. 구씨는 “예전에 네팔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한인 2세 학생들을 만나 대화를 나눴는데 한국전쟁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 그때부터 교육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했다”며 “한국전은 ‘잊혀진 전쟁(Forgotten War)’으로 불리지 않나. 6·25 때 미국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구 동문 부부는 재단 설립 후 전사자 고향 방문 프로

젝트를 위해 ‘리버티 워크(Liberty Walk · 자유의 걸음)’ 행사를 매년 6월 25일 개최했다. 1마일을 걸을 때마다 일정액을 기부하는 행사다.

가족을 비롯한 이웃, 친지, 동창 등 모두가 후원자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한국에서도 행사가 진행됐다. 후원자들과 주한 미군이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미8군 기지를 거쳐 국립중앙박물관까지 함께 걸었다.

구씨는 “첫 리버티 워크 행사 때가 한국전 70주년이었는데 그때 걷힌 모금액이 5033달러였다”며 “그때부터 5033달러를 기부 금액으로 정했고 여러 후원자의 기금과 사비 등을 털어 재단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구 동문 부부는 직접 운전을 하고 기부할 학교에 방문한다. 대부분 시골 지역 학교라서 구석구석 다니려면 비행기보다 자동차가 낫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동부에 살면서 캘리포니아 등 서부 지역까지 운전도 마다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기부를 위한 운행 거리만 무려 4만 마일이 넘는다.

구 동문의 남편은 경기고등학교(57회)와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1967년 뉴욕으로 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체를 운영했다. 구 동문과는 1974년 결혼해 딸 둘과 손자 하나, 손녀 셋을 두고 맨해튼과 버몬트주에 거주하고 있다.

구 동문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첫 한국어 투어 가이드로 30년 넘게 봉사하면서 인더스와 페르시아 유적을 포함한 고대문명 발상지, 지중해 연안 23개국, 신라에서 고구려를 거쳐 베니스를 잇는 실크로드까지 인류문화 답사여행을 하면서 스케치하고 시를 써왔다.

구 동문 부부는 “학교를 한 군데 정해서 교육구와 협의하고 결정이 되기까지 약 1년 정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50개 주 방문 프로젝트가 끝나도 차세대가 계속 리버티 워크 행사를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군은 3만7000여명이고 7000여명은 여전히 실종(Missing in Action) 상태인 만큼 자유의 걸음을 멈춰설 수는 없다는 이유였다.



구창화 동문은 고대문명 발상지와 인류문화유적지 순례를 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바비큐 파티를 위해서 바비큐태스크포스팀이 오전부터 LA갈비를 구웠다. 왼쪽이 모원균 팀장.



점심 식사 대응으로 제공된 핫도그세트가 참석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서 우정 더 ‘돈독’

남가주 지부 가을 피크닉 성료

서울대 동문들이 남가주의 아름다운 하늘을 마음껏 즐긴 가을 피크닉 행사가 지난 9월23일 남가주의 유명 공원인 부에나파크시 소재 랠프 클라크 파크에서 열렸다. 이날 서울대 동문과 가족 등 300명은 서울대 남가주 동창회(회장 김경무)의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식사와 게임을 함께 하며 동문간의 우정을 쌓고 모교 사랑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오후 4시부터 제공된 LA갈비를 마련한 바비큐태스크포스(팀장 모원균 동문)는 3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을 위해서 4시간 넘게 제대로 쉬지도 못하며 고기를 구웠다. 이들은 이날 뜨거운 그릴 앞에서 매운 연기와 검은 그을음을 뒤집어 쓰는 악전고투를 벌였는데 이를 지켜본 많은 동문들이 위로와 격려를 전달해 진한 동문애를 키우기도 했다. 이날 제공된 LA갈비는 330파운드로 파운드당 13달러여서 재료값만 4300달러가 소요됐다. 그릴도 총 3개가 동원돼 거의 4시간을 구웠는데 미리 준비한 숯불이 모두 떨어져 급히 차콜을 구해 저녁 식사에 맞추기도 했다.

박진국(의대65) 동문은 “많은 동문이 참석해 함께 게임을 하고 두 끼를 함께 먹어 매우 훌륭한 행사였다”면서 “한날 함께 한자리에서 같은 메뉴로 식사를 했으니 이제 우리 남가주 동문들은 모두 한 식구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의 게임 진행은 남가주 전임 회장인 최용준(수의대 81) 동문이 나섰는데 총3시간이 넘었음에도 동문과 가족들 모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최용준 동문은 “미리 준비한 프로그램을 대부분 모두 소화했다”면서 “역시 서울대 동문들은 피크닉과 게임마저도 매우 모범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날 첫 게임은 ‘1불 게임’으로 시작했다. 누구나 1달러를 들고 시작해 열자리 동문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동문에게 돈을 몰아주는 게임으로 박수삼(미대 59) 동문이 여러 번의 가위바위보를 이겨 64달러를 챙겼다. 뒤이어 넌센스 퀴즈, 동문 15명이 출전한 신발 한 짝 멀리 날리기(우승 박정근 동문), OX게임으로 이어졌다. 또한 참가자 중 여성 12명이 참가해 이날 최고 선배인 강향운(농대 51) 동문 앞에서 댄스 경연(우승 주준희 동문)을 펼치기도 했다.

이날 게임의 하이라이트는 ‘짜짓기’였다. 100여 동문과 배우자들이 잔디밭으로 이동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다가 사회자가 특정 숫자를 부르면 그 숫자만큼 팀을 이뤄 성공 여부를 가리는 게임으로 이날 최종 4명이 짜짓기(?)에 성공해 우승했다.

한편 미주동창회에서 내놓은 고급 담요 20개 등 푸집한 상품이 동문들에게 골고루 전달됐다.

장병희 편집위원



행사가 시작되자마자 이야기 꽃을 피운 남가주 동문들. 왼쪽 게임 진행을 맡은 최용준 동문 등이 카메라가 나타나자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댄스 경연에서 유독 고전 무용을 선보인 여성 참가자(김상찬 동문의 부인)의 춤사위를 심사위원이 박수로 응원하고 있다.



여성 12명이 참여한 댄스경연에서 우승한 주준희(왼쪽) 동문이 우승을 확정짓고 심사위원인 강향운 동문과 기념 댄스를 하고 있다.



넌센스 퀴즈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동문과 가족들이 사회자가 설명하는 문제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



1불 가위바위보 게임의 최종 결선 모습. 오른쪽 박수삼 동문이 2승1패로 이겨 총 64달러를 챙겼다.

“선배님들 사랑·도움, 후배 동문에게 전할 것”



하트랜드 동창회 동문들이 지난 9월 9일 캔사스주 오버랜드 파크 셰라톤 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와 동문의 밤 행사에 한데 모였다.

하트랜드 지부

59학번 최연장자 동문이 ‘오늘의 가수’ ‘게임 귀재’ 이주현 동문 진행에 웃음꽃



호민선 (상대 59)

“확실히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트랜드 지부 동창회 모임에 계속 참석하면서 참석 인원은 줄었으나 그나마 소수의 모임을 알차게 이끌어 가는 임원들의 노고와 재치에 축하를 보냅니다. 짧은 주제강의, 아마추어들의 특별순서, 오묘한 분위기, 쉬운 퀴즈게임 등등 많이 참석하지 못한 것을 보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Labor Day 주말이어서 여러분이 여행 중이라 참석하고 싶어도 못 온 분이 많으니 다음해 부터는 날짜 선정에 더 큰 지혜가 필요하겠죠. 회장부터 음악가가 많은데 최소한 한분쯤은 연주나 노래를 했으면...”



김경숙(가정 70)

“하트랜드 총회에서 임소연 회장님과 선후배님 동문들을 만나뵙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수 있도록 여러가지로 배려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정희 (음대86)

“선배님들과 동문들이 함께 모여서 너무 반갑고 또한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식사 시간에도 맛있는 음식과 함께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의 노래를 들으며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고 게임시간도 정말 좋았습니다.”

하트랜드 지부 24차 정기총회와 동문의 밤 행사가 지난 9월9일 캔사스주 오버랜드 파크에 있는 셰라톤 호텔에서 동문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많은 때는 50분 넘게 모이기도 했는데 점점 연로해지고 펜데믹을 거치면서 거동도 불편해져 올해는 호민선(상대 59), 이재명(의대 59) 동문이 최연장자로 자리를 빛내주셨다.

두 동문님은 이날 특별연주시간에 가수로서 노정희(음대 86) 동문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드보르자크의 ‘Going home(꿈속의 고향)’과 이수인곡 ‘내 맘의 강물’을 불러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 이재명 동문은 워낙 유머러스한 분인데 코믹한 제스처에 아마추어로는 손색이 없는 무대 매너로 청중을 이끌면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주셨다.

오락 여흥시간엔 ‘놀이의 귀재’ 이주현(미대 92) 동문이 진행을 맡아 부부금슬을 시험하는 동문서답 질의응답에서 아이들 장난감 돈 100달러짜리를 상품으로 내걸고 커플별, 테이블 퀴즈 맞추기 등 게임을 진행해 동문들 얼굴에 웃음꽃을 피게 했다. 800불까지 모은 동문도 있었는데 진짜 돈이 아닌 것을 몹시 아쉬워했다.

올해 동문의 밤은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의 화기에애한 시간이었다. 재무를

맡은 김경운 동문은 2000학번이고 새로 첫 참가한 엄시내 동문은 2006학번으로 앞으로의 동창회는 더 많은 젊은 동문들이 함께 할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작년 10월 젊은 동문을 아우르고자 ‘서울대 9000모임’이라는 소그룹을 발족해 이주현 총무와 한혜순 동문 맥에서 두번 만났고 10월 중 University of Kansas에 있는 동문 교수들과 만나 식사를 하며 우리 지부 동창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뒷세대 동문 선배님께 받은 사랑과 도움을 후배 동문에게 전하고 돕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동창회에는 이상강 미주동창회장장과 김경숙 사무총장이 멀리 LA에서 차를 몰고 참석해주셨다. 특히 이상강 회장께서는 지부 장학금 활성화를 돕기 위해 2000달러의 장학금까지 주셨다.

“동창회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게 느껴졌고 특히 장학생 프로그램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 돋보였다”는 이상강 회장의 격려에 큰 힘을 얻었다.

항상 격려해주고 한마음으로 애쓰는 동문 선후배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를 전한다.

취재=임소연 회장(음대 91)



배규영 (사대68)

“25여 년 전 처음 하트랜드 지부 동창회에서 들은 말씀이 생깁니다. 한국의 미래를 보기 원하면 ‘관악을 보라!’ 서울에서 오신 총동창회장님의 인사말 중 첫 귀절이었습니다. 그 이후 25년 동안 동창회 모임에서 이 말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올해에도 임소연 회장님을 포함, 모든 임원들의 노력으로 알찬 모임을 가지게 되어서 많은 박수를 보냅니다. 주위에 있는 아이비리그 출신 백인들의 모교 사랑을 보면서 언젠가는 SNUAA도 그렇게 되겠지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Best Regards.”



이주현 (미대 92)

“15년 넘게 동창회에 참여하면서 좋은 기억과 인연을 만들게 되어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다음 세대들이 또 열심히 뛰면서 새롭지만 서울대의 긍지를 유지하는 동문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얼굴 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이치현 (약대77)

“옛그제 들은 이름이 기억나지 않고, 몇시간 전에 보았던 충전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물거리는 나이이지만, 25년을 이어온 하트랜드의 전통이 살아나고, 향수에 젖어 옛시절로 돌아가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동문 모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장님이하 준비위원회 임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젊은 후배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했으면 합니다.”



이치현(왼쪽) 전 회장과 임소연 회장이 LA서 불원천리 달려간 이상강 미주동창회장(가운데)을 반갑게 맞고 있다.



북가주 동창회 여름 야유회가 지난 8월26일 시카모어 카운티 파크에서 열린 가운데 동문들이 함께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9학번부터 94학번까지 세대 아우른 친목 다져

윤성희, 이재성 동문 하모니카 연주에 동문들 엔돌핀 ‘핑퐁’

북가주 지부

김철규 이사장에 뒤늦은 총동창회장 공로상 전달
12월3일 송년모임 때까지 우리 모두 “진행!”

올해 첫 정기 동문 모임이었다. 지난해 연말 송년파티를 하고 8개월만이니 오랫동안 학교 선�후배를 만난 동문들 얼굴엔 반가움이 가득했다.

모임 장소는 쿠퍼티노에 있는 시카모어 카운티 파크. 10년 넘게 이곳에서 여름 야유회를 해왔다. 정자가 있어 햇빛을 가려 주고 그늘이 시원하니 연로하신 동문들이 좋아하는 곳이다.

지난 8월26일 열린 북가주 동문회(회장 최경선, 농대 65) 야유회에는 80여명의 동문, 가족이 참가했다.

최연장자인 49학번 한만섭(공대) 선배님부터 최연소자인 94학번 강현석(의대) 후배님까지 50년 가까운 나이차가 났지만 그게 뭣이 대수랴. 우리는 서울대인이라는 한가지줄이다.

음식은 진판델 멤버들과 김철규(공대 60) 이사장 부부 그리고 동문 사모님들이 모임 시작 전부터 열심히 준비하셨다.

진판델? 와인 동호회로 들릴 수도 있지만 매주 함께 산에 오르는 북가주의 오랜 등산 동호회다.

이날 야유회에선 지난 6월 열린 평의원 회의에서 김종섭 모교 총동창회장이 수여한 공로상 표창패가 김철규 이사장에게 전달됐다. 많이 늦어졌지만 상은 언제 받아도 좋은 법, 김철규 이사장이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동문들을 잘 알고 입담 좋기로 유명한 임승쾌(문리대 64) 동문이 진행한 자기 소개 시간에 이어 윤성희(사대 58), 이재성(공대 65) 동문의 하모니카 연주가 있었다.

어려서부터 하모니카를 불어온 윤성희 동문은 하모니카 전도사다. 목회학을 공부하고 선교를 통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 진짜 전도사지만 질병예방과 치료 등 건강증진을 위해 오라는 곳은 마다 않고 찾아가 하모니카 부는 법을 가르치고 있으니 말그대로 ‘하모니카 전도사’인 셈이다.

윤 동문은 세계하모니카 경연대회 공인 국제 심판관이고 팬데믹 전에는 스탠포드대 의대에서 ‘하모니카와 호흡 건강증진’을 주제로 강의를 하기도 했다.

참고로 윤성희 동문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보건대학원에서 한국인 첫 공중보 건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세계은행에서 일하고 존스 홉킨스대 보건대학원에서 국제보건학을 가르친 보건 전문가다.

믿기든 믿기지 않든 하모니카의 건강효과를 설파하는 그의 말을 들어서 나쁠 것이 하나도 없을 거라는 얘기다. 그래서였을까? 윤 동문과 이재성 동문이 무려 1시간 넘게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동안 노래로 합주를 하던 동문들의 얼굴은 한 살 두

살 어려져보이는 듯했다. 당연히 착각이겠지만 동문회 서너시간 엔돌핀이 마구 돌았으니 분명 오늘 하루 우리는 많이 젊어지고 건강해졌으리라.

팬데믹 전만 해도 하모니카 동호회는 진판델과 함께 북가주의 활발한 소모임을 대표했었다. 동문들의 하모니카 합주가 다시 울려 퍼질 그날을 기대해본다.

북가주 동문회에는 연례 행사가 크게 3개가 있다.

첫 모임이 여름 야유회, 그 다음이 봄이나 가을에 여는 골프대회, 마지막이 송년 모임이다. 9월23일엔 골프모임이 열린다. 모두들 골프를 치는 건 아니니까 우리 동문 모두가 다시 만날 날은 송년모임이 될 것이다.

그때는 옆동네, 뒷동네, 아랫동네 사는 아는 동문들에게도 연락해 그분들도 서울대 한가족이라는 새로운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12월3일 송년 모임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글·사진=최경선(농대 65)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윤성희(오른쪽), 이재성 동문. 무려 한 시간이 넘는 연주를 동문들은 함께 노래하며 즐겼다.



김철규 이사장이 뒤늦게 모교 김종섭 총동창회장 공로상 표창패를 전달 받고 미소짓고 있다.



10년 넘게 여름 야유회를 해온 쿠퍼티노의 시카모어 카운티 파크. 정자 모양의 지붕이 있어 동문들이 좋아하는 곳이다.

“산행 열심히 하다 보니 10년은 젊어졌어요”

남가주 서울대 산악반



네바다 주립공원인 밸리오브파이어에 있는 파이어캐년에서 계곡타기 끝에 최종 목적지인 실리카돔(Silica Dome)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하늘과 땅의 경계에 도달한 회원들이 활짝 웃고 있다.

30년 동안 410회, 200여 곳 산행 페루 잉카트레일도 9박10일 원정



시에라 네바다산맥의 빅파인크리크에 등정했다. 노스포크트레일 2번째 호수(Creek North Fork trail 2nd Lake)가 아래로 보이는 템플 크래그(Temple Crag) 앞에서 쌓였던 눈이 녹고 있는 봉우리를 배경으로 회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인중 대원이 샌게이브리얼 산맥에 있는 크리스탈 레이크 부근 솔저스캐년 계곡타기(Canyoneering)중 마지막 루이스폴(Lewis Fall) 70피트를 하강하고 있다

남가주 지역 서울대 동문들에게 자랑거리인 소모임이 있는데 바로 ‘산악반’이다.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다.

시작은 공대 산악반이었다. 모임 이름이 ‘산악반’임에도 반장은 없다. 대장인 김동근 동문(공대 60)은 “1989년 시작부터 공대 동기들이 의기투합해 회장 없고 회비 없는 산악 모임을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공대 동기 10명이 모여서 건강에도 좋고 친목도 도모할 겸 등산이나 해보는 단순한 제안에서 시작해 30년이 넘었습니다. 중간에 친구도 친구의 친구도 합류해서 출범했지요.”

희망차게 출발했던 첫 해 모임은 의외로 성과가 없었던 탓에 1990년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첫 해로 친다. 틀이 잡힌 다음부터 한 달에 한번 정규 하이킹에 나섰다. 캘린더의 첫 토요일은 어김없이 산악반 차지다.

1999년 오홍조 남가주 동창회장 시절 공대 이외 동문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그리고 2005년 김영 남가주 동창회장 재임시 더 이상 공대 산악반이 아니고 ‘남가주 서울대 산악회’로 승격(?)됐고 오늘에 이른다.

매월 20명이 모인다. 이제까지 산악반을 거쳐간 인원은 대략 40~50여 명 정도다.

30년을 맞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그동안 산행 회수는 대략 410회, 다녀온 트레일은 200곳이나 된다.

가장 많이 간 곳은 워터맨 산(샌게이브리얼산맥), 가장 어려웠던 곳은 휘트니산, 아이언 산이었고 가장 어려운 등정은 조세핀 크리크였다. 산행 지역을

따져보면, 샌게이브리얼, 샌타모니카, 샌버나디노, 샌하신토, 샌타바버러, 샌타애나에 이른다. 1만 피트 이상인 곳도 휘트니산, 화이트산, 그랜드테톤, 라센, 샌고르고니오, 샌하신토, 발디산이다.

가장 긴 원정은 9박10일로 페루의 잉카트레일이었다. 국립공원도 원정 대상이었다. 요세미티를 비롯해 조슈아트리, 자이언, 브라이스, 채널 아일랜드, 킹캐년, 세코이아, 데스밸리, 피너클, 그랜드캐년, 그랜드테톤, 옐로스톤까지 다녀왔다.

산악반이 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다 보니 필연적으로 구성원들의 고령화(?)가 진행됐다. 하지만 회원 모두 세월이 훌쩍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모두 건강하다. 산악반 최고령 동문은 85세인 정동구 동문(공대 57)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한 동문이 됐다.

김동근 대장은 “김 모 선배는 2~3년 선배인데 규칙적인 덕분에 10년은 젊어 보인다”면서 “선배들의 건강이 남달라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산악반은 또한 정규 하이킹 외에도 특별 및 원정 산행에도 나선다. 남미의 마추픽추를 비롯해 애리조나 네바다 등 1주일 이상되는 일정의 산행도 시행하고 있다. 단 한명의 낙오자도 허용하지 않는 철저한 ‘단합’이 30년 넘는 기간동안 활발하게 모임을 이어오고 있는 비결로 꼽힌다.

“팬데믹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간 곳이 매우 많았다”며 박진국 동문은 “규칙적인 산행보다 건강에 좋은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다른 동문들의 참여도 권유했다. 현재 회원은 정동구(공 57) 동문을 비롯



남가주 산악반 원정대가 애리조나 세도나 소재 코코니노 내셔널 포리스트(Coconino NF)에 있는 캐터덜 락에 등반 중 뜨거운 햇볕을 피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

해, 김병완(공 58), 김영규(공 58), 정종현(공 60), 김홍묵(문 60), 김동근(공 60), 조정시(공 60), 성낙호(지 61), 송재한(약 61), 남종우(공 62), 고윤석(공 62), 박진국(의 65), 백정현(음 66), 박혜옥(간 69), 구시완(의 68), 양효준(지 68), 정영준(공 70), 최복철(공 70), 제영혜(생과 71), 박재선(공 71), 김인권(지 72), 김재각(음 72), 한정희(음 72), 김인중(농 73), 이호진(간 74), 배재현(공 74), 원영배(미 74), 이재준(공 75), 류혜련(음 79), 양수진(간81) 동문이다.

장병희 편집위원

“함께 책 읽고 공부하는 즐거움 쏙쏙해요”

워싱턴DC 북클럽

워싱턴DC 지부 북클럽 모임은 2022년 2월 발족한 이래 매달 셋째 주 월요일 ZOOM으로 만난다. 책을 읽은 동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모임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래 표에 지금까지 북클럽을 통해 소개된 책들을 모아 봤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모임은 2022년 9월(저자와의 대화), 2022년 11월(대면 모임) 그리고 2023년 5월(하이브리드 모임)이 있다.

매달 셋째 월요일 줌 모임, 동문 누구나 참여 지난해 2월 출범 이후 책 20여권 읽고 토론



김연주
(자연대 90)

유명 작가 초청해 대담

크리스틴 그로스-로는 하버드를 졸업하고 뉴스위크, 월스트리트저널, 애틀랜틱, 허핑턴포스트 등 미 주요 언론과 TV 프램에서 양육 전문가로 활동하는 한인 2세대.

그가 쓴 'Parenting Without Borders'(한국어 번역본 제목은 '세상의 엄마들이 가르쳐 준 것들')는 세계 18개국 육아 선진국 엄마들을 취재하며 만난 다양한 사례와 인지발달, 아동심리, 양육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조언을 수록해 큰 관심을 모았다.

우리 북클럽은 2022년 9월 그를 초대해 그가 쓴 다른 책 'The Path: A New Way to Think About Everything'과 관련해 즐거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The Path'는 하버드대 스타 교수인 마이클 푸엣의 강연을 담은 책으로 크리스틴 그로스-로가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참고로 푸엣은 중국사 교수로 그는 하버드에서 5년에 한 번, 전체 교수들 중 5명을 선정해 수여하는 하버드대 학부 강의 최고의 교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한국 대학 초빙 교수로 강연해 한국에서도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크리스틴은 어떻게 푸엣 교수의 강연을 공동 저술하게 되었는지 등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 줬고 북클럽 토의에 참여해 질의 응답을 하면서 북클럽 형식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 줬다.

크리스틴의 조언에 따라 북클럽 모임

말미에 각 참가자들이 느낀 바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음악 책 읽으며 음악 감상

2022년 11월 음악과 관련된 책인 'Absolutely on Music: Conversation with Seiji Ozawa (Murakami Haruki)'에 대해서 5명의 발제자가 준비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 배경 설명과 그에 따른 음악을 함께 감상하는 알찬 시간을 가졌다.

한국에서 '오자와 세이지씨와 음악을 이야기하다'로 번역된 이 책은 소문난 음악 애호가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세이지 오자와 인터뷰한 350페이지짜리 대담집이다.

세이지 오자와는 레너드 번스타인의 부지휘자로 뉴욕 필하모닉에서, 카라얀의 부지휘자로 베를린 필하모닉에서 활동했고 토론토, 보스턴, 빈 오페라하우스 등에서 음악감독을 지냈는데 당시에 에피소드들을 듣는 재미가 쏙쏙했다.

모임 참가자들은 모두 하루키의 음악에 대한 박학다식함에 놀라고, 오케스트라 연주와 오페라 공연 등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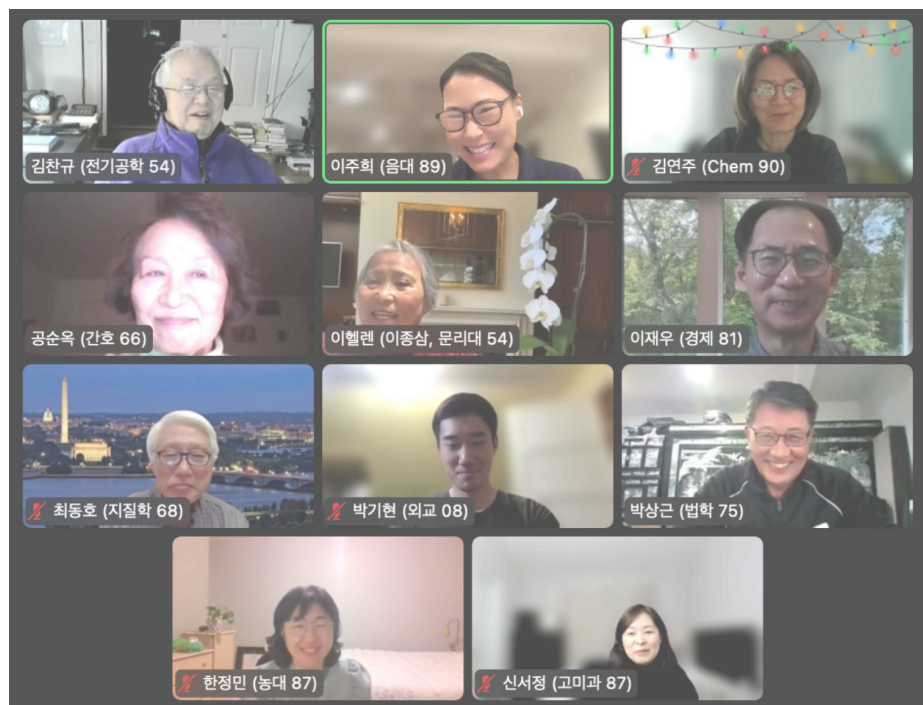
세이지 오자와가 낯선 타국에서 들었다는 엔카, 천재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의 연주, 현대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등을 함께 들었다.

통일부 동문과 줌 대화

2023년 5월에는 하이브리드 (대면+줌) 모임으로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Don Oberdorfer, Robert Carlin)'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의 책을 읽었다.

'두 개의 코리아'로 번역된 이 책은 1950년대부터 워싱턴포스트 극동지역 특파원을 지내고 존스홉킨스대 교수를 역임한 돈 오버도퍼가 쓴 남북 현대사를 다룬 책이다.

박정희 이후의 대통령들은 물론 북한까지 드러내며 중요한 사안의 관련자들을 직접 인터뷰해 한국 현대사의 생생



2022년 2월 줌으로 진행한 북클럽 첫 모임.

Month	2022	2023
1		Seven Brief Lessons on Physics (Carlo Rovelli)
2	Anxious people (Frederick Backman)	The Stranger in the Lifeboat (Mitch Albom)
3	Pachinko (Min Jin Lee)	Empire of Pain: The Secret History of the Sackler Dynasty (Patrick Radden Keefe)
4	Think Again (Adam Grant)	The Underground Railroad (Colson Whitehead)
5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Don Oberdorfer, Robert Carlin): 하이브리드 모임, 박성렬 (통일부) 동문 특별강연
6	Where the Crawdads Sing (Delia Owens)	Love in the Time of Cholera (Gabriel García Márquez)
7	Educated: A Memoir (Tara Westover)	체소의 기쁨, 바다표범의 키스 (무라카미 하루키)
8	Stories of Your Life and Others (Ted Chiang)	Klara and the Sun (Kazuo Ishiguro)
9	The Path: A New Way to Think About Everything (Michael Puett and Christine Gross-Loh): 저자와의 대화	Why Fish Don't Exist (Lulu Miller)
10	일의 기쁨과 슬픔 (장류진)	Tulip Fever (Maggie Debow)
11	Absolutely on Music: Conversation with Seiji Ozawa (Murakami Haruki): 대면모임	Nobody's Normal (Roy Grinker)
12	Ordinary Grace (William Kent Krueger)	인생의 역사 (신형철)

한 일화들이 담겨 있고 국제정세 맥락 속에서 남북한과 미국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통일부 서기관으로 재직중인 박성렬 동문을 줌으로 연결해 그가 통일부에서 경험한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발표도 들었다.

54학년부터 08학번을 아우르는 참가자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연 통일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각자에게 던져보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지금의 북클럽 모임은 전현직 북클럽 준비위원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상근 (법대 75), 이주희 (음대 89), 신서정 (고고미술 87), 한정민 (농대 87), 이관후 (산공 87), 박기현 (외교 08) 동문이 준비위원으로 많은 수고를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북클럽을 통해 읽은 책은 벌써 20권을 넘어가고 있다. 참가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가 서로 같은 책을 읽었는데도 해석과 느끼는 바가 달라서 놀라고, 서로의 다른 생각에서 많이 배운다는 것이다.

줌 미팅이라서 미주 다른 지역의 동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책은 각자 읽더라도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공부하는 즐거움'을 맛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 북클럽은 미주 동문들의 참여도 환영한다.

북클럽 참여를 원하는 동문 여러분은 아래의 링크로 사인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 <https://forms.gle/tGdwAesvtKHdN8g6>
10월 북클럽 사인업 링크

▶ <https://forms.gle/7Lct2kV5AzHu8ENSA>
11월 북클럽 사인업

▶ <https://forms.gle/FA17jnt8s7qXNnQ7>
12월 북클럽 사인업

“달걀 사려면 식료품점에서 일해야 한단다”

‘아니 왜’ 유병순 동문의 궁금증, 4년 만에 책으로 나와



유병순
(수학과 84)

어느 좋은 가을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었다. 나는 켜켜이 쌓인 온갖 잡동사니들을 치워내며 어머니가 사시던 시골 집에서 가을을 보냈다. 그곳 빈자리에는 어머니의 기억만이 남겨졌다. 초겨울의 스산함을 뒤로한 채 오렌지 카운티로 돌아오니 모든 것이 다 그대로인 듯 또는 다 낯선 듯도 했다.

해가 바뀌었고 달도 다시 바뀌니, 2014년 2월이 되었다. 직장의 매니저가 뜬금 없이 회의를 잡았다. 나는 영국 런던에 본사가 있는 회사에 적을 두고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나의 매니저는 아일랜드에 있는 사람이었기에, 우리의 회의는 전화로 이루어졌다.

아직 세상에는 줌이라는 것이 없었기에. 아마 그 매니저는 전화로 회의를 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해고라는 것은 당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통보하는 입장에서든 편할 수는 없는 것이 보통이니까. 회사 돌아가는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었기에 나도 이제나 저제나 예상을 하고 있었고, 놀랄 일은 아니었다.

12년을 다니던 직장을 잃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무언가 매달리면 더 안 되는 때가 있다. 한 몇 년 동안은 회사에서 적당한 보상을 받고 해고될 수 있기를 기다리기도 했는데, 막상 그런 기대를 접고 나니 덜컥 소식이 오는 것이다. 어쨌든 잘 되었다. 할 수 없이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하게 되었으니.

달리 재주도 없고 무모한 도전을 할 만한 강단도 없었기에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야 했다.

이 곳 저 곳 수천 마일 거리를 오가며 구직을 했지만 어찌어찌 다들 무언가 맞지 않았는데, 결국 나의 인연은 뉴욕에서 찾아졌다. 남가주서 뉴욕으로의 이주는,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이민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오십 대와 삼십 대의 차이인 것인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는 말리는 사람이 없었는데, 남가주에서는 적잖이 나를 말렸다.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낯익은 땅 정든 친구들 다 버리고.

새로운 도시에 살게 된 것도 힘든 일인데, 오랜 시간 집에서 일하는 데 익숙

PARK SLOPE FOOD COOP
50 YEARS
OF COOPERATION
SUN YU



유병순 동문이 최근 아마존을 통해 출간한 책 'Park Slope~'의 표지.

해져 있다가 책상들이 뻑뻑하게 머리를 맞대고 있는 시끄러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에 적응하려니, 그러잖아도 빨리 흐르는 시간이 더 빠르게 지나갔다.

하지만, 뉴욕에서는 재미있는 일들이 또 많이 찾을 수 있었고, 찾아야만 했다. 남가주에서는 항상 차를 운전해야만 생활이 가능하기에 차 안에서 내다보는 풍경이란 405번 고속도로 위의 다른 차들이 제일 흔한 것인데, 뉴욕에서는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낯선 사람들과 가까이 접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다.

심지어는 복잡한 맨해튼 길 위에서 마주오는 사람과 서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 지나칠 것인지 눈빛을 교환하

뉴욕의 생활협동조합 'Park Slope Food Coop' 회원들이 일 나뉘며 운영 50년 연대기 답아

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보통 유럽 사람들이 미국인들을 두고 사교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나로서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뉴욕에 와서야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아마도 뉴욕은 사교적인 미국인들 중 최고로 사교적인 사람들이 섞여 사는 곳이 아닌가 한다. 낯선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고 섞여서 살아가는 촉각이 잘 발달되어 있다. 동시에 그것은, 어떤 충돌이 생기면 매우 공격적이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맞서는 방법을 누구나 체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맨해튼에서 하기 힘든 일들 중의 하나는 집에서 요리를 하는 것이다.

작은 규모의 스튜디오는 말 할 것도 없고, 방이 하나 둘 있는 아파트라고 해도 부엌의 규모와 시설이 집에서 요리를 해서 먹고 산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은 듯한 정도이다. 흔하게 널려 있는 미슐랭 스타가 달린 레스토랑에서 끼니를 모두 해결하라는 것인지. 부엌이 그 모



Park Slope Food Coop 가게 모습. 가입한 회원들이 함께 일하고 하면서 운영하는 식료품점으로 50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양이니 먹거리의 재료를 파는 식료품점도 거기에 비례한다. 냉동포장된 가공식품들은 천지에 널렸지만 신선한 식재료들은 귀하다. 우리 가족에게는 맛있고 신선한 달걀이 중요한 식재료인데, 성에 차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하루는 문득, 구글이라는 것이 생각났다. 맨해튼에서 신선한 달걀 찾기!

우리가 찾는 달걀을 파는 곳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은 파크 슬로프라는 동네에 있는 한 생활협동조합(Co-op)이었다. Park Slope Food Coop. 맨해튼의 우리 집에서는 거의 한 시간을 넘게 지하철을 타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었었는데, 이 생협의 규칙이 참 독

립한 가격으로 식료품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부부는 주저할 것 없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회원이 되어 4주마다 차례가 돌아오는 근무시간에 맞추어 일을 했고, 또 별도로 한 달에 두어 번씩 장을 보러 다녔다. 우리가 가입할 당시 전체 회원 수가 약 1만 7천 명 정도였는데, 좁은 매장은 장보는 회원들과 일하는 회원들로 항상 붐볐다. 신기했다.

내가 뉴욕에 대해 어떤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지만, 이런 협동조합이 다른 어떤 곳도 아니고 뉴욕에 존재한다는 것이 신기했다. 월스트리트, 패션, 브로드웨이의 극장들, 재즈, 할렘...그리고 독특한 규칙의 협동조합?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뜻을 같이 모으고 규칙을 정해서 함께 일하고 식료품점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1973년에 시작되어 오 십년 가까운 시간동안 유지해 왔다는 것이 놀라웠다.

어떻게 생겨났을까? 어떻게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이 모인 것일까?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나에게서는 신기함과 궁금증이 가시지 않았다. 그 역사를 정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탄생과 성장에 대한 나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이런 공동체의 역사로부터 어떤 희망과 영감, 또는 교훈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조합의 초창기부터 발행된 격주 소식지를 찾아서 연구를 시작했고, 그렇게 시작된 일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다 보니, 거의 4년만에 하나의 책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글은 거칠지만, 조합의 탄생과 성장, 시대의 변화와 함께 조금씩 바뀌면서 여전히 조합원 참여라는 원칙을 지켜가는 모습을 담담하게 정리해 놓았다. 부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기를 바래 본다.

“먹고 사랑하라” 고급 맛집 순례는 뉴욕 사는 즐거움

뉴욕에 사는 프리미엄 중의 하나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래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맨해튼은 수많은 관광객을 위해 식당의 수가 대단히

많고, 세계적인 금융, 비즈니스, 패션, 예술의 중심지답게 최고급에 속하는 레스토랑과 바(Restaurant & Bar)가 즐비하다.

김창수

(약대 64, 경영대학원 68, CPA)

나는 32가 한인타운에서 동포들을 주고객으로 하는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오픈하기 전 14년간 미국 직장생활을 하면서 한식 이외의 각국 음식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 특히 이태리, 불란서, 일본 음식을 먹을 기회가 많아, 그때부터 우리 한식보다는 외국 음식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위의 세나라 음식과 중국음식은 먹을 때 맛있고, 먹고 나서 그 다음 날까지 배속이 편해서 좋다. 그리고 식당 내부의 디자인이나 식당 종업원의 서비스가 대부분의 한식당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다. 그래서 친구들과 또는 직장생활에서 외식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한국식당 보다는 외국식당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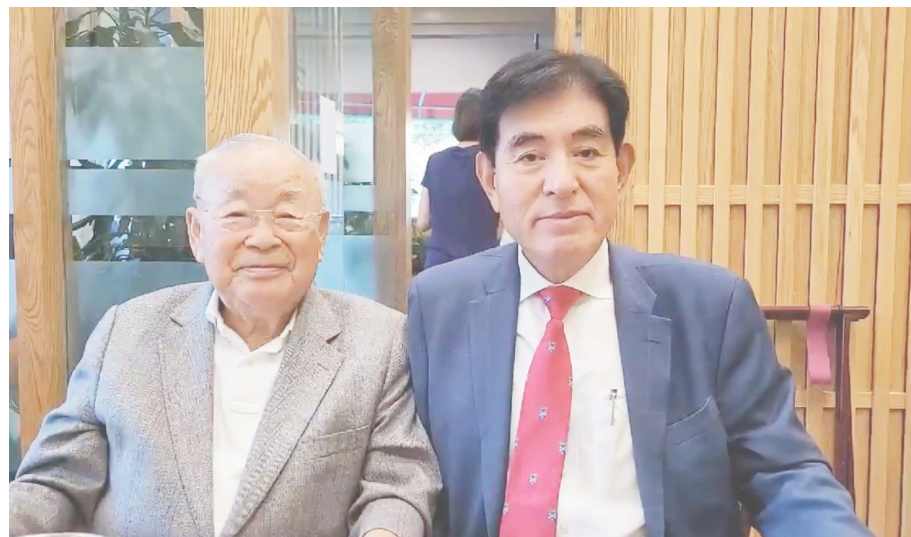
매주 수요일 뉴욕타임스에는 레스토랑(RESTAURANTS) 섹션이 있다. 거기에 피트 웰즈(Pete Wells)라는 음식평론가가 뉴욕 시내의 여러 레스토랑을 순례하면서 “Restaurants”라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전에는 샘 시프톤(Sam Sifton)씨가, 2008년까지는 프랭크 브루니(Frank Bruni)씨가, 그리고 그 전 몇년간은 윌리엄 그라임스(William Grimes)씨가 이 칼럼을 담당했었다.

이 분들은 어떤 식당을 선정할 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드링크와 애피타이저부터 시작해서 안트레이(Entree)를 거쳐 디저트까지 다 먹어 보고 나서, 주방장(Chef), 음식의 맛, 분위기, 서비스 등에 관해 길게 평을 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평가를 별표(*)로 표시하는데, 최고 등급이 별 4개(Extraordinary)이다. 간혹 별을 하나(Good)도 못 받는 Poor-Satisfactory 등급의 식당도 소개된다.

그리고 식당 분위기, 서비스, 소음 정도, 추천할만한 음식, 드링크, 가격수준, 영업시간, 예약관계, 크레딧 카드, 휠체어 이용 등에 관해 별표 밑에 요약해 둔다.

보통 관찬은 식당은 별이 2개(Very Good)인데, 한두 달만에 별 3개(Excellent) 짜리가 한 번씩 소개되고, 별 4개짜리는 1년에 한두 번 밖에 안 나온다.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안트레이 값이 50 달러 내지 75 달러 정도면 별을 2개 밖에 못 받고, 세 코스가 100 달러 이상은 되어야 별 3개를 바라볼 수 있다. 별을 3개 정도 받는 식당은 수주 전에 전화를 해야 예약을 할 수 있는데, 일인당



김창수(오른쪽), 이준형 동문은 양식을 좋아해 수십년 간 디너 파트너로 고급 식당 순례를 함께 해왔다.



김창수 동문이 담근 매실주. 집에서 수확한 매실로 해마다 매실주를 담가 햇빛 안드는 지하실에서 1년간 숙성시킨다.

뉴욕타임스 레스토랑 칼럼 읽는 게 오랜 취미 고급 식당은 테이블에 식탁보와 천 냅킨 있어야 한식 보다 비용 들지만 분위기, 서비스는 4배

식사비가 보통 125달러가 넘는다. 뉴욕타임스의 별 3개는 미셀린(Michelin) 별 2개와 같은 급이다. 미셀린 스타는 최고가 별 세계이다.

나는 오랜 세월동안 이 뉴욕타임스의 레스토랑 칼럼을 스크랩해 오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소개된 식당을 찾아가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는 것이 취미 중의 하나가 되었다.

외식을 할 경우에 뉴욕타임스 칼럼 이외에 주로 참고하는 가이드는 자गत(Zagat)에서 나온 뉴욕시 레스토랑 업소록(ZAGAT NYC Restaurant Directory)이다. 자गत 회사에서는 3만명 이상의 자원 서베이 결과를 토대로 뉴욕을 비롯한 미국내 대도시의 식당 리스트를 매년 발간한다.

그 가이드는 선정된 식당마다 음식맛,

데코레이션, 서비스의 세가지 부문에 각각 3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놓았는데, 구글을 거쳐 2018년 3월에 The Infatuation에 회사가 넘어가면서 프린트물은 더 이상 발간되지 않고 웹사이트와 온라인에만 소개되었었다. 그리고 30점 점수 대신에 5점에서 1점까지의 Rating으로 대체하였다. 지금은 인쇄물도 나오고 있다.

“자गत”의 뉴욕시 레스토랑 디렉토리에는 1천 4백 여개의 식당이 수록되어 있다. 우선 알파벳 순서로 식당이 소개되어 있고, 뒤쪽에는 음식의 종류와 식당의 위치에 따라 분류를 해 놓았고, 모임의 목적과 원하는 분위기, 서비스 스타일에 따라서 분류한 페이지도 있다. 원하는 종류의 음식에 따라 교통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식당을 몇 군데 찾아서, 우



김창수 동문이 20년 넘게 단골로 애용하는 스페인 음식 전문 마벨라 레스토랑.

선 4줄 정도의 평을 읽어보고 음식맛과 가격을 참고해서 예약을 하면, 별로 실망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의 신문 독자가 아닌 사람들은 웹사이트 nytimes.com/food에 들어가서 Restaurant Reviews 칼럼을 볼 수 있고, 원하는 지역, 음식 종류, 가격 수준에 따라 뉴욕시내(특히 맨해튼)의 식당을 서치할 수 있다. 그리고 자गत의 식당 가이드도 zagat.com에서 찾아 볼 수 있고, 원하는 식당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해놓았다.

뉴욕시에서는 겨울과 여름에 2~3주씩의 식당 주간(NYC Restaurant Week)을 갖는다. 겨울에는 1월이나 3월 중에, 여름에는 7~8월 중에 열리는데, 참가하는 식당들이 점심은 30달러, 저녁은 45~60달러에 3코스를 제공한다. 그 기간 동안 한 주에 두세 곳을 방문하면, 뉴욕에서 관찬은 식당에 가서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음식과 멋진 분위기를 즐기는 셈이다.

고급 레스토랑은 테이블 위에 식탁보와 천으로 된 냅킨이 있어야 하고, 간접조명으로 멋진 분위기를 자아내야 한다. 그리고 칵테일을 만들 수 있는 고급스러운 바(Bar)가 시선을 끌어야 하고, 서비스는 아무나 하지 않고 그 테이블의 담당 웨이터(혹은 웨이트레스)와 버스보이가 하게 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한국식당은 실내장식과 서비스 면에서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고 식사시간에 찾아가는 밥집과 같은 수준이다.

뉴욕의 고급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한식보다는 비용이 곱절이 들지만 분위기와 서비스는 네배 정도 즐길 수 있다. 이 맛과 멋이 생활비 비싼 뉴욕에 사는 프리미엄이다.

“어디를 가든 여행은 무조건 남는 장사”

이종호 동문의 디트로이트, 미시간 2박3일 여행 일기

이종호
(동양사학과 81)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와 주변 도시들을 여행했다. 노동절 연휴 2박3일 일정이었다. 처음 디트로이트를 가겠다 하니 주변 사람들이 다들 의아해했다. 쇠락한 도시라 볼 것도 없고 치안도 불안한데 거길 왜 가느냐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곳곳이 디트로이트를 찾아갔다. 볼 것 많아 가는 여행도 좋지만, 아무 것도 없어도 뭔가 새롭게 발견하는 재미 또한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해서였다. 역시 결과는 기대 이상이였다. 발 닿은 곳 모두가 새로웠고, 특히 랜싱에서의 동문 후배와의 만남은 이번 여행을 더 특별하게 해 주었다.

#.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 웨인카운티 공항에서 내려 차를 빌린 후 바로 디트로이트 강변 다운타운으로 향했다. 먼저 GM 본사 건물과 자동차 전시장을 둘러봤다. 한산했지만 구경할 만했다. 건물 밖으로 나가 캐나다가 건너다보이는 강변도 걸었다. 깨끗하고 평화로웠다.

도심엔 재즈 페스티벌을 알리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조용하지만 뭔가 꿈틀거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로 다운타운을 기웃거리다 무작정 들어간 식당도 기대 이상이였다. 지중해식 브런치가 훌륭했고 중동인 종업원의 다정한 친절도 기분이 좋았다. 처음 가졌던 불안한 선입견은 불과 반나절 만에 완전히 사라졌다.

도심 외곽 디어본이라는 곳에 있는 포드뮤지엄도 볼만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화려했던 과거를 모아놓은 자동차 박물관으로 디트로이트 여행의 필수 코스다. 전시관은 넓고 컸다. 대충 둘러보는데도 두 시간 가까이 걸렸다. 포드뮤지엄의 주제는 혁신(Innovation)이었다. 포드자동차가 어떻게 초기 미국 산업 성장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각 시대별 자동차들이 증언하고 있었다.

포드는 한 때 디트로이트뿐 아니라 미국 전체를 대표하는 혁신 기업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회사의 주식 시가총액은 어지간한 신생 IT기업보다도 적다.



바다같은 휴런호에 발을 담근 필자 이종호 동문.

1980년대 이후 다양한 차종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취향을 외면하고 수익성 높은 트럭과 SUV 생산에만 몰두한 결과다. 포드뮤지엄은 현재나 미래의 혁신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포드자동차의 미래 역시 뭔가 불투명하다. 디트로이트를 위해서라도 포드자동차가 더 분발하고, ‘혁신 기업’으로 다시 일어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발길을 돌렸다.

디트로이트 미술관((Detroit Institute of Art:DIA)도 빠뜨려선 안 될 방문 코스다. 한때 디트로이트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그리고 여전히 전통과 문화의 저력이 꿈틀거리는 곳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3대 미술관이라 하면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보스턴 미술관, 시카고 미술관을 꼽는다. 여기에 디트로이트 미술관과 필라델피아나 클리블랜드 미술관 중 한 곳을 더해 5대 미술관이라 한다.) 전시 공간이 넓고 전시물도 워낙 다양해 주마간산 식으로 훑기만 했는데도 세 시간이 훌쩍 지났다.

피카소, 마티스, 드가, 로댕, 고흐 등 미술 교과서나 교양서에 빠지지 않는 거장들의 작품을 직접 대하는 재미가 우선 특별했다. 멕시코의 거장 디에고 리베라(1886-1957)의 디트로이트 산업 벽화(Detroit Industry Murals)는 눈을 땔 수 없을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양쪽 벽면 전체를 캔버스 삼아 1930년대 포드

자동차 공장과 노동자들을 모습을 생생히 담은 작품이다. 중국관, 일본관과 나란히 한국관이 따로 마련돼 있다는 점은 요즘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반증인 듯싶어 더욱 반가웠다.

디트로이트는 미시간에서 가장 큰 도시다. 1960년대까지 미국 경제를 이끌던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미국 차 판매가 일본차에 밀리면서 도시도 함께 쇠락해 갔다. 한창 때 200만 명 가까이 됐던 인구는 지금은 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최근 들어 도시 재건 운동이 활발히 펼쳐지면서 어느 정도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디트로이트가 다시 인정받고 여행자들을 더 불러 모으려면 어쨌거나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 오대호, 랜싱, 앤아버

미시간주는 오대호 다섯 호수 온타리오호를 제외한 네 개의 호수에 접해있다. 슈퍼리어, 미시간, 휴런, 이리호가 그것이다. 미시간이라는 말은 원주민 언어로 ‘물이 많다’ 뜻이다. 지형적으로는 크게 두 개의 큰 반도로 되어 있다. 미시간호와 휴런호 사이에 돌출한 아래쪽 반도와 슈퍼리어호 쪽의 위쪽 반도다. 도시는 대부분 아래쪽 반도에 있다. 위쪽 반도는 자연경관 빼어난 삼림지역으로 혹독한 겨울 기후 때문에 인구는 희박하다.

오대호 중 하나라도 봐야겠다 싶어 휴런호를 찾아갔다. 목적지는 디트로이트 북쪽으로 한 시간 반쯤 떨어진 호반도시 베이시티. 인기 가수 마돈나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도심 강변 전망 좋은 식당을 찾아 요기를 하고, 휴런호를 끼고 있는 베이시티 주립공원을 찾아가 걸었다. 휴런호는 미시간 주민들의 휴양지였다. 작은 연못(lagoon, 석호)이 곳곳에 있고 숲도 울창해 가볍게 걷기엔 안성맞춤이었다. 호숫가로 나가 휴런호에 발도 담가 보았다. 바다가 없는 이곳에선 호수가 곧 바다였다. 멀리 수평선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태양은 눈부셨고 흰색 모래는 더욱 반짝였다. 그 속에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일광욕과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미시간 풍경이었다.

랜싱과 앤아버 두 도시를 오가면서 미시간의 드넓은 평원과 농촌 풍경도 한껏 맛볼 수 있었다. 랜싱은 미시간의 주도다. 동쪽에는 미시간주립대(Michigan State University)가 있다. 전체 학생 수가 5만 명에 육박해 이 대학으로 인해 랜싱의 경제가 돌아간다고 할 정도다.

앤아버는 디트로이트에 좀 더 가깝다. 이곳엔 미시간주 최고 명문 미시간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가 있다. 학교 주변을 구경하고 학생들 사이에 유명하다는 가게들도 둘러보았다. 휴일임에도 젊은이들로 활기가 넘쳤다.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기념품도 샀다. 덩달아 30년 쯤 젊어진 기분이였다.

이번 여행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은 것은 랜싱에서의 동문 후배와의 만남이었다. 미시간주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조현각(동양사 84) 동문이다. 8년 만의 만남인데도 어제 본 듯 반가웠다. 덕분에 학교 캠퍼스도 구경하고 근사한 저녁도 함께 했다. 특히 조 동문이 직접 담긴 막걸리는 만남이 시간을 더욱 각별하게 만들었다. 역시 여행의 백미는 사람임을 또 확인했다.

어디를 가든 여행은 무조건 남는 장사다. 좋은 경치, 낯선 풍물 뭐든 새로운 자극이고 새로운 경험을 늘리는 일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거기에 사람과의 만남까지 더해지면 더할 나위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디트로이트, 미시간 여행 역시 나에게 2023년을 기억할 빼놓을 수 없는 이벤트 중의 하나였다. *



미시간주립대 교수인 조현각 동문과 함께.



DIA의 대표작인 디트로이트 산업 벽화.



포드뮤지엄 내부 전시물

“2박3일 부흥회 다녀온 듯” 즐겁고 감동 ‘가득’

수의대 동문들, 브라이스 & 자이언 캐년 2박3일 단체 여행



신동국
(수의대 76학번)



노동절 연휴 브라이스와 자이언 캐년 단체여행에 나선 수의대 동문과 가족들이 브라이스 캐년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버스 타고 오가며 동문들 들려준 이야기 인생 명강의 그 자체 “다들 존경스러웠다”

9월 2~4일 노동절 연휴를 맞아 수의과 대학 동문회 주최로 동문과 가족 30명이 브라이스(Bryce) 캐년과 자이언(Zion) 캐년 국립공원 여행을 다녀왔다.

아침 일찍 출발해 라스베이거스로 가는 도중 점심을 먹고 애리조나주를 지나서 저녁 6시 조금 넘어 브라이스 캐년 여행의 거점인 유타주의 세인트 조지(St. George)에 도착했다.

뷔페식당에 들렀는데 맛이 참 좋았고 호텔도 마음에 들었고 날씨가 덥지 않고 선선해서 더욱 좋았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오며 가며 이들 동안 버스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동문들이 자신을 소개하며 들려준 심금을 울리는 소중한 이야기들이었다.

오죽하면 이번 여행 가이드를 맡은 분이 마지막 날 소감에서 모시는 분이 서울대 출신 엘리트에 수의사들이라서 처음엔 많이 긴장했는데 다른 여행팀들과 달리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자기 조카가 수의대를 갈까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바로 조카에게 전화해서 수의대에 가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동문들도 그동안 여행사를 통해 많은 여행을 다녀왔지만 이런 좋은 여행은 없었다며 마치 2박3일 부흥회를 갔다온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그건 아마도 오랫동안 같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낸 세월이 길었기에 스스로 없이 자신의 허물도 편하게 말

할 수 있을 만큼 다들 친하고 우리 동문들이 살아온 삶이 존경스럽고 아름답기 때문이었으리라.

돌아오는 날 사회를 맡아 3시간 반 가량 동문 소개 시간을 가졌는데 여성분들께서 참으로 소중한 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어느 선배님은 돈주고도 들을 수 없는 인생 명강의라고 말씀하셨다.

양로원에서 쓸쓸히 삶을 원망하고 비관하며 죽기만을 기다리는 분들을 찾아가 들어주고 소망을 주고 죽음을 초연하게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이야기, 서울대 동문들 중에서 어렵고 힘든 노년을 보내는 분들을 위해 저렴한 노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거동이 불편하면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운전도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경쟁자인 다른 사람이 승진하도록 도와주니 시간이 지나 부메랑이 되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는 이야기, 남가주총동창회 장학생으로 LA에 온 학생인데 부모가 돌아가시고 빚까지 떠안은 상황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도와준 이야기, 비영리기관을 세워 장학금을 주고 스피치 훈련을 시켜 대학과 대학원을 거쳐 사회 리더로 키워낸 이야기에서 손녀가 K-pop 아이돌로 뽑혀서 훈련을 받을 것이라는 기쁜 이야기까지...

삭막한 이 세상에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며 사는 동문들을 보면서 존경



엄청난 바위 절벽과 계곡이 어우러진 브라이스 캐년의 절경.

스럽고 가슴이 찡하고 먹먹해지고 따뜻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수의대 동문들이 워낙 끈끈한 정을 자랑하고 또 2박 3일 버스로 함께 움직였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제 여행 이야기로 돌아가서 둘째날인 3일 아침 호텔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두시간 반 걸려 브라이스 캐년으로 갔다.

관광버스들이 많이 가는 Sunset point의 경치는 장관이었다. 그룹으로, 부부끼리 사진을 많이 찍었다.

브라이스캐년 입구 작은 도시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두 시간 반 정도 걸려 자이언 캐년으로 갔다. 여기는 스케일이 큰 엄청난 바위 절벽과 계곡이 어우러져 매우 남성적이다.

초입새의 큰 암벽들은 모양이 특이해 마치 벽돌을 쌓아놓은 듯한 느낌이다. 매우 큰 절벽이다. 조금 가다보니 산양 두

마리가 보인다. 계곡 안으로 가면 하이킹코스가 많고 경치가 매우 아름다우니 다음에 시간 되면 와 보라고 한다. 긴 터널을 빠져나와 바로 밑에서 내려 경치를 보니 웅장한 계곡 모습이 또한 장관이다. 조금 더 가니 자이언 인류사 뮤지엄이 나오는데 미국에서 평생 지리학 교수를 지내다 은퇴한 박시영 동문(사대 63)이 이곳은 지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표본이라고 설명해준다. 뮤지엄에는 유타주라서 성경이 아닌 물몬경이 전시되어 있었다.

저녁에 라스베이거스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사람들이 춤추며 노는 올드 타운 밴드 공연도 함께 즐겼다.

우리 수의대는 선후배간의 단합과 단결이 잘 되어서 타 대학의 부러움을 받는다. 그래서 단체 여행이 가능하다. 아름답게 여생을 즐기는 우리의 그룹 여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수의대 동문 ‘모교 사랑’은 본교서도 화제 지난 7월 즉석에서 5만 달러 모아 기부

1970년말 결성된 재미서울대수의과대학동창회는 재미한인수의사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정길택 동문이 스터디 그룹을 조직해 많은 한인 수의사를 배출했다. 동창회는 또 1983년 이장락 학장부터 시작해 새로 취임하는 학장들을 초청해 모교 소식을

듣고 후원을 해왔다.

1989년 초청 방문한 권종국 학장의 말씀이 학장들 회의에 참석했는데 총장께서 “우리 대학에 단과대학이 많은데 미국에서 학장을 초청하는 곳은 오직 수의과대학뿐”이라고 말해 매우 proud하셨다고 한다.

1992년부터는 모교 학생들을 초청해 한 달간 연수를 시켰다. 51명의 학생이 다녀갔고 그중에 7명은 미국으로 다시 와 수의사 되었다.

후에 모교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곳 동문 30여 명을 초빙교수나 겸임교수로 초청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게 하였다.

모교와 한국의 수의대동창회는 2002년 ‘자랑스런 수의대인상’을 제정했는데 그동안 동부에서 신상재, 조정현, 김현영, 김문소, 지흥민, 윤상래, 이갑재 동문이, 서부에서는 박종수, 손수웅, 김영, 박민식, 최재현, 강동원, 신동국 동문이 ‘자랑스런 수의대인’ 상을 받았다.

올해는 지난 7월 수의대 성제경 학장이 방문해서 학생복지를 위한 기부 캠페인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자리에서 아홉 동문이 500만원씩, 세 동문이 100만원씩 모두 5만 달러 정도를 모아 기부했다.

박종수, 박민식 동문 부부는 그동안 백만 달러 이상 기부하며 모교 사랑에 앞장 서고 있고 1만달러 이상 기부한 동문도 매우 많다.

미대 한귀희 동문은 최용준 동문과 친하게 지내면서 수의대 행사에 자주 참여하고 기부와 봉사도 해 감사의 뜻을 담아 수의대 명예회원으로 추대되기로 했다.

서울대 동문들 즐기는 인문학 플랫폼 역할

2014년 출범 Acro 인문강좌

서울대 미주 동문들의 학구열을 조금이나마 달래준 것이 바로 ‘아크로 인문강좌’다. 지난 9월26일 강좌가 벌써 418회였다. 공부하는 동문회 소모임의 ‘시조새’격이다. 굳이 따지자면, LA지역에서는 서울대 미주센터가 뿔서길에 문을 열어, 의료 관광이라는 아이টে으로 상주 간호사와 상주 센터장으로 교수가 파견 나온 적이 있다. 당시에 서울대 경영학과 장정주 교수가 센터장으로 나왔을때 미주센터에 동문들을 상대로 한 강좌가 있었다. 물론 미주센터의 설립자는 국문학과 이상익 교수다. 요즘은 이미 상식이 된 ‘플랫폼’을 소개하는 강좌가 당시 참가했던 동문들의 입을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다.

미주센터의 강좌는 관(?)이 주도하는 것이고 민(?)이 주도하는 강좌는 아크로 인문강좌, 혹은 ‘낭만의 아크로 인문산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까지 500회를 눈 앞에 두고 달리고 있는 것이다.

관이 아니고 민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강좌가 굳이 서울대 동문들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식공유 및 즐거운 인문

학의 낭만을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한 정규 강좌의 마당이다. 매달 3회 내지는 5회에 걸쳐 화요일 저녁에 열린다. 인문의 지식으로 빼곡한 산책 길을 걷게 되는 것과도 같은 기분으로 진행되고 있다. 원래 낭만산책은 LA 인근 National Forest 및 Los Angeles Forest에 퍼져있는 수많은 등산로를 정기적으로 즐기던 서울대 동문들이 우연히 뜻이 맞아 2014년 6월 부터 ‘한문의 시문학’ 산책의 강좌를 김동근 강사를 모시고 매월 갖게 된 것이 시초다.

이후 한인과 지식 공유의 뜻을 같이 하고자 뒤이어 김지영 변호사와 김학천 치과 의사의 ‘영미소설문학’ 및 ‘우리문학’이 각각 낭만산책에 더해져 그해 9월 정식으로 ‘낭만의 ACRO 인문산책’이 출범했다.

이후 모든 강사들의 합동 강좌를 비롯해서 매월 정해진 화요일 저녁에 차례로 돌아가면서 강좌를 열었다.

‘한문시’를 열고 보니 우리 조상들의 시도 찾아 봤지만 고대 중국의 역대 시인들의 많은 시들을 접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그 시인의 시대 사회상을 열

어보게 되며 역사, 철학 및 정치사들을 짚어보게 되니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영미문학 강좌에서는 자연히 그리스 신화시대부터 로마를 거쳐 셰익스피어를 대표로 하는 극작 및 시문학을 통한 영국 문학의 자취와 미국대륙에서 발전한 새 세대의 소설 및 시문학까지 탐방했다. 특히 영미에서 선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인이창래 등이 소개됐고 Silk Road에 얽힌 동양인들의 구라과 진격의 역사와 함께 이어지는 북방민족의 확산과 그에 따른 이야기 및 중동지방과 철학 종교의 근원지인 인도의 문화 등이 다뤄지기도 했다.

이들 김지영, 김학천 강사에 이어서 지금까지 “우리의 멋드러진 전통국악의 이모저모”를 김동석 강사, “산피 명상”을 김무신 강사, “리듬과 음악”을 김영균, “Freud 이야기”를 장철호 강사, “건강진맥”을 이원영 강사, “분노와 폭력의 심리학”을 장균희 강사, “불란서 Chanson”을 배성옥 강사, “NASA와 명왕성”을 Paul Yoon 강사,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다”를 김문희 강사, “돈과 화폐, 경제의 실상”을 최운화 강사, “휴전선을 걸어서 넘어온 국제여성평화활동가들에 대한 보고”를 정연진 강사, “유

전과 생명공학으로 본 우리의 몸”을 김재범 강사, “생물학 태로와 대책”을 Henry Yoon 강사, “불란서에서 비롯된 ROMANCE”를 배성옥 강사, “死後世界를 示唆하는 科學的研究 및 含蓄된 意味”를 김자성 강사가 강단에 서기도 했다.

강의실 강좌의 시작은 ‘나란다 불교 아카데미의 강의실’을 제공받아 사용하였으나 협소하여 1주년이 되는 2015년 9월 부터는 가주국제대학교(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강당을 사용해 왔지만 지난 2021년 2월에 코비드가 창궐하면서 온라인 강좌를 이어오고 있다.

이로 인해 오히려 공간적인 제한이 풀리면서 미주 어디 아니 세계 어디에서도 이 강좌에 참가해 인문 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 또한 강사로 참여해 자신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항상 훌륭한 강사를 찾고 있으며 주위에 추천할 경우에도 310-292-2649으로 언제나 연락이 가능하다. 본 강좌의 참여 후기는 동문들의 웹사이트(www.acroplists.com)에서 ‘아크로 공지 게시판’과 ‘나누고 싶은 글과 생각’ 코너에 들어가면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장병희 편집위원

켄 리우의 소설속에 나타난 인간 뇌의 업로드

8월 29일 김지영 강사 강연

공상과학계의 신성 ‘켄 리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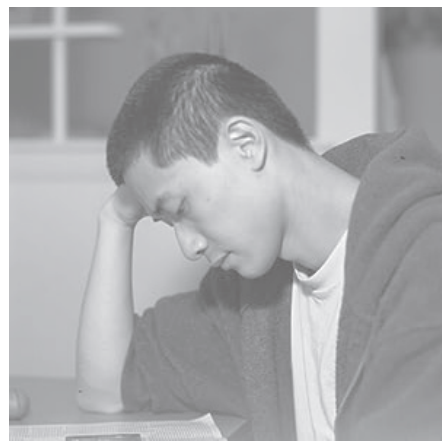
요즘 미국에서 뜨고 있는 새로운 작가 켄 리우(Ken Liu)를 소개한다.

그의 장르는 공상과학소설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중국계로 11세에 미국에 와서 캘리포니아에서도 잠깐 살다가 동부로 가서 하버드에서 영문학과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자신의 회사를 차리기도 했고 나중에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가 된 다음에 하이테크 관련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공상과학소설계의 노벨상이라는 Nebula상과 Hugo상을 수상하는 등 인기와 인정을 받기도 했다.

그가 중국어로 쓴 ‘쓰리 바디 프라블럼’시리즈는 밀리언 셀러가 됐고 영어로도 출간돼 빅히트를 쳤다.

그의 작품중 단편집 히든 걸 중 하나인 ‘세븐 버스테이’가 요즘 시사와 관련해 눈에 띄고 있다. 특히 엘론 머스크의 뇌관련 비즈니스의 시도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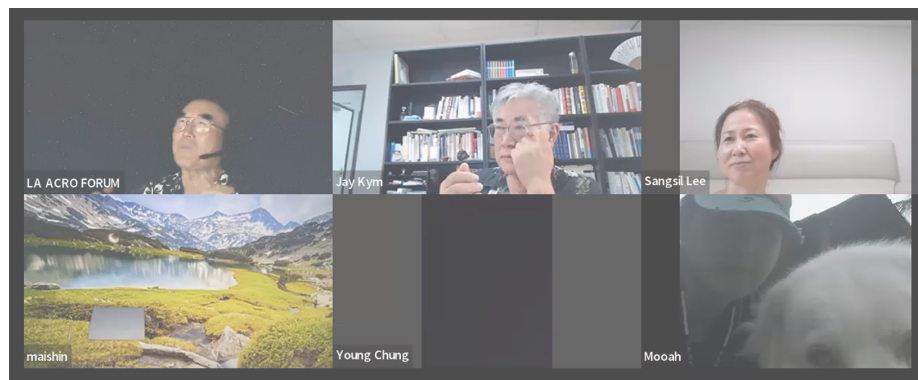
줄거리는 어떤 주인공의 생일을 7개 골라서 이야기를 이어간다. 우선 첫번째 생일 풍경은 주인공이 일곱살이다. 배경은 아마 샌프란시스코 정도, 7살짜리의 엄마는 항상 바쁘다. 엄마는 대단한 과학자이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문제부터 시



중국계 작가 켄 리우

작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줘야 되는 사람이고 그걸 찾아서 미국, 중국 등의 지도자들과 매일 회의를 하기 때문에 엄마는 굉장히 바쁘다. 7살 생일 되기 전에 엄마와 연을 날리자는 약속을 하는데 당일에 엄마는 공원에 밤늦게 도착해 잠시 얼굴만 보여주고 떠난다.

소설 속 다음 생일은 49살. 42년이 지났으니 그때 바빴던 엄마는 양로원에 가고 그 양로원 풍경이 펼쳐진다. 그런데 양로원에 300명의 노인이 있는데 그들을 돌보는 건 3천 개의 로봇이고 이들 로봇을 움직이는 사람은 3명의 간호사다. 그 다음 세 번째 생일은 343세 생일이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다. 컴퓨터가 발전하고



지난 8월29일 진행된 줌 미팅 모습. 강사는 LA에, 수강자는 멀리 한국에서도 참여했다.

사람의 육신은 길어야 100년이면은 못 쓰게 되니 육신을 버리고 정신만 컴퓨터에 업로드 해서 컴퓨터 속의 사이버로 살아간다는 얘기다. 343세 생일을 맞은 때는 이미 살아 있긴 한데 육신이 없어 컴퓨터 속에 프로세스다. 그 프로세스 속에서 자신의 딸에게서 생일을 축하 받는다. 이어서 주인공은 2401세, 1만6807세, 11만7640세, 82만 3543세의 생일 풍경을 담는다.

실제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사람이 육신을 버리는 것은 간단한데 육신을 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흔히 정신이라고도 하고 의식이라 하는데 그 의식을 과연 업로드한다는 얘기는 어떤 인포메이션을 컴퓨터 사이버 세상에 업로드 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의식의 정의가 어렵다는 점에서 생물학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문제가 된다.

이 이야기는 불교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 생각을 해봤을 문제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인간의 존재를 3개로 나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육계’는 글자 그대로 육망이 있는 세계. 그 다음은 색계는 육망은 없어졌지만 육신은 있는 상태다. 3번째가 무색계다. 여기에 올라가면 사람의 육심도 없어지고 완전히 정신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미 불교에서 말하는 3개 이야기가 켄 류 작가의 세븐 버스테이에 보면 3번째 생일 장면인 343세 이미 인간은 무색계의 존재다.

사실 무세계의 존재는 어떤 프로세스, 컴퓨터 프로그램 속에서 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으로 소설에서는 그게 뭐냐는 대답을 못한다. 작품에서는 이외에도 의식이 우주로 먼 우주로 날아가기도 한다. 단편집에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한국의 병풍과 수묵화, 미국서 잘될 거란 확신 있었죠”

김성림 다트머스대 미술사학과 교수

미국서 화제의 한국미술 순회 전시 기획
서울대 교환교수로 한국 여성 작가 연구
“지금 내 어젠다는 한국 미술의 세계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미술관 세 곳에서 열린 조선 책거리 병풍 순회전. 낯선 한국의 민화에 보여준 현지 미술 애호가와 학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한국 미술의 새로운 일면을 세계에 알린 일대 사건이었다.

‘현대 수묵화 대가’ 박대성 화백의 미국 순회전도 화제였다. 지난해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 다트머스대 후드미술관에 이어 지금도 미 동부 스톤브룩대 등지에서 진행 중인 전시다. 국내에선 ‘이건희가 아낀 작가’이자, 전시된 그림을 밟고 논 아이를 용서한 거장으로 유명한 작가다. 그의 작품에 대한 평론이 담긴 한국화 연구도록도 영문으로 출간됐다.

이 모든 일을 기획하고 UC버클리 최초 한국미술사 강의, 피바디에섹스 박물관 한국갤러리 재개 등 ‘미술 한류’의 씨앗 같은 일들을 주도한 사람, 김성림 다트머스대 미술사학과 교수다. 그가 지금 안식년을 맞아 교환교수로 서울대에 와 있다. 관악캠퍼스 50동 연구실에서 만난 그는 “지금의 내 어젠다는 ‘한국 미술의 세계화’”라고 말했다.

한국미술이 변방에서 세계에 알려지는 과정을 그는 몸소 겪었다. 선화예고에서 동양화를 전공하다 고2때 도미해 1996년 미술사 전공으로 UC버클리를 졸업했다. “대학 때 사실 혼란스러웠어요. 박물관에서 한국미술은 중국, 일본 갤러리 가운데 복도에 도자기 정도 놓은 게 전부고, 도서관에 영문판 중국, 일본 미술사 책은 즐비한데 한국 미술사는 10권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던 세상은 한국이 중심인데, 이게 뭐지? 했죠.”

답답하던 차에 한국 신문에 실린 정양모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칼럼을 보고 편지를 보냈다. 그게 인연이 돼 학부 졸업 후 광화문에 있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년간 유물부 인턴을 했고, 많은 작품을 접했다. 박물관에 통번역 담당이 1명일 정도로 해외 교류를 위한 인력이 적던 시절이다. “금관이나 도자기 말고 이렇게 좋은 우리나라 작품이 많은데, 해외에 알릴 사람이 없구나 싶었죠. 해야 할 일이 좀 생긴 것 같았어요.”

미국에 돌아와 캔자스대 석사에 이어 UC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미술사 전공이 없어 중국미술사로 입학했지만 샌프란시스코 아시안 뮤지엄에서 한국미술 큐레이터로 6년간 일하며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졸업 후엔 UC버클리 최초의 한국미술사 강의를 개설해 2년간 가르쳤다. 첫 학기부터 정원을 초과할 만큼 인기 있었다. 여러 대학의 교수직 오퍼를 받고 고민하던 중, ‘한국학을 시작하는데 함께하자’는 김 용 전 총장의 제안에 택한 곳이 다트머스대. 오래 생각해온 기획을 실행에 옮겼다. 첫 번째가 책거리 전시였다.

“책거리는 불과 몇 년 전까지 미술사 책에도 나오지 않는 장르였어요. 조선 시대에 산수화, 화조화, 영모화는 있어도 정물화는 없었거든요. 18세기 말 갑자기 등장하는데 상당히 독특해요. 한국의 책장과 다르게 비정형적인 책장은 중국의 것이고, 안경, 자명종 등 온



갖 해외 문물이 함께 그려졌죠. 국제적이면서도 한국화되어가는 모습을 어느 학회나 발표에 가서 얘기해도 사람들이 재밌어 했어요. 경쟁력 있겠다 싶었죠.”

예상대로 전시는 대히트를 쳤다.

‘Korean still life’ 혹은 ‘scholar’s accoutrements’라는 번역 대신 한국어 ‘책거리(Chaek-geo-ri)’를 고수했다. “일본의 우키요에도 그대로 쓰는데 왜 우리 번역하나 싶었어요. 미술 딜러들이 연락해서 ‘대체 뭘 했길래 미술관들이 책거리, 책거리 하나’더군요.”

박대성 화백은 큐레이터로 일할 때 컬렉터가 한국에서 구매한 ‘천지인’ 작품으로 처음 접했다. “관객들이 다른 그림은 지나치면서 유독 그 그림 앞에선 오래 머무르는 거예요. 5m 넘는 대작에 제가 봐도 그림에서 기운이 솟아 나오면서 한편으로 그림 속에 빨려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몇 년 후 큐레이터들과 경주의 화백님 스튜디오를 방문했을 때도 질문이 쏟아졌고요. 늘 질문 받던 ‘한국화의 현재’에 대한 답을 찾은 기분이었죠.” 순회전 성공 이후 현지 미술관에서 한국인 큐레이터 채용도 늘었다.

김 교수는 “미국에서 주류 아닌 입장으로 지내며 주목받지 못한 존재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커졌다”고 했다. 조선시대 미술 시장에서 중인의 역할로 박사논문을 쓴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한국미술도 세계 미술에서 아직 비주류지만 상당히 경쟁력 있다. 문제는

자신을 알리는 법을 모른다”고 했다.

“미국에 와서 수업시간에 자화상을 그렸어요. 작품 설명을 시키기에, ‘잘 그렸으니, 알아서 판단하겠지’ 하고 짧게 말했는데 칭찬은커녕 다들 멀뚱멀뚱해요. 반면에 손가락 하나 그려놓은 친구가 30분간 작품 철학을 떠드는데, 그걸 들으니 그림이 그럴싸해 보이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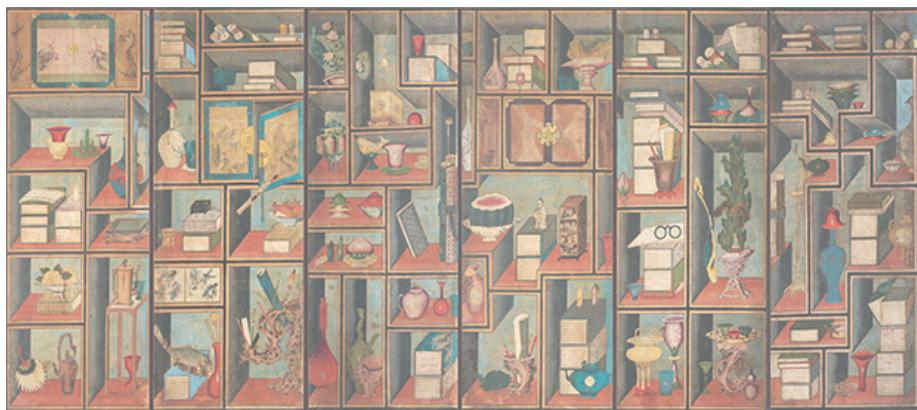
2021년 서울대 동양화와 졸업작품 전시회에 평론가로 초청받았을 때도 설명만 부탁하면 우물쭈물 말을 흐리는 학생들이 안타까웠다. 그 때 가르쳐준 것이 ‘엘리베이터 피치’다. 스타트업계에서 단 몇 분 내에 투자자를 설득하는 대화법으로, 예술가에게도 필요한 능력이다. “당시 서울대생들이 제일 궁금해 한 게 ‘동양화, 수묵화가 해외서 경쟁력이 있을까’였어요. ‘한 번 전시해보고 알려주겠다’ 했는데 정말 가능성을 봤잖아요. 이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는 다트머스대에서 미술사학과와 아시아문화학과 소속으로 근현대 한국 미술을 연구하고 있다. 2018년 정년을 보장받았다. 한국 여성 작가를 연구하기 위해 서울대에 왔고, 올해 12월까지 머무른다. “이번 학기 대학원에서 ‘한국 미술사 연구’ 수업을 열어요. 학기 절반은 한국미술사를, 나머지 반은 예비 작가들이 해외 진출을 대비해 자신의 철학과 예술관을 정리하고 영문 포트폴리오 만드는 걸 도와주려 해요.”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중간자로서 그의 눈에 보이는 것들,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많다. 특히 한국미술의 독자성만 강조하기보다 세계 미술사의 큰 맥 속에서 바라봐야 함을 강조했다.

“한류는 어느날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17, 18세기 유럽에 중국 문화 열풍인 ‘시노아즈리’가, 19세기 중후반 일본 문화를 동경하는 ‘자포니즘’이 있었죠. 그런 물결 속에 우리의 시대가 온 거예요. 한국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은 저도 가르치면서 놀랄 정도예요. 우리 이제 자신감만 가지면 됩니다.”

박수진 기자



지난 2016년 미국 전시에서 빅히트를 친 책거리 6폭 병풍.



미국 순회 전시 중인 ‘현대 수묵화의 거장’ 박대성 화백의 작품.

여성 선구자들 삶 통해 ‘현대 여성’ 토대 쌓아

조봉완(법대 53학번) 동문, 3번째 영문 소설 출간



조봉완
(법대 53)

조지타운대 명예교수인 조(오)봉완(법대 53학번) 동문이 최근 자신의 3번째 영문 소설을 출간했다.

이번에 출간한 영문 소설은 ‘LONGING FOR MOTHER’(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라는 제목으로 현재 아마존에서 판매 중 (by Bonnie B.C. Oh)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소설은 한국에서 한때 수필가 및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던 김일엽 비구니의 아들인 일당 스님의 청년 시절에서 영감을 얻어 태어났다. 주인공인 아들은 일엽 스님과 일본 귀

족의 사생아로 일엽 스님은 아들 일당 스님이 아주 어릴 때 자신의 과오를 참회하고자 속세를 떠나 스님이 됐다.

그래서 아들 일당 스님은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고 여러 가정에 입양되며 청년기를 지냈다. 그러다 자신의 어머니가 따로 있음을 알게 되었고 어디에 있는지 알게 돼, 어머니를 그리워 하며 찾아 다니기 시작했다. 이 작품은 이런 스토리를 극화한 것이다.

“일제 강점 하에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밝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보니 김일엽(시인), 나혜석(화가), 윤심덕(성악)을 선구자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중 김일엽에 대해서 소설로 다루게 됐습니다.”

본지와 인터뷰에서 조 동문은 작품을 통해 여성 선구자의 삶이 무척 힘들었다는 점과 개화 초기에 교육받은 여성들은 비난까지 받았지만 결국 이들이 현대 한국 여성의 토대를 닦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조 동문은 조지타운대 한국학 석좌교수를 끝으로 38년간 대학교수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후 3권의 소설을 출간했다. 첫 번째 작품은 그의 자전적 소설로

‘PHOENIX IN A JADE BOWL’(옥그릇에 담긴 불사조)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다녔다.

두 번째 작품은 ‘MURDER IN THE PALACE’라는 제목으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다룬 역사 소설이다.

이 작품은 한국어로 ‘궁내의 살인’이라 번역돼 출간됐으며 워싱턴지역 한인 문화계에서 수여하는 팔봉문학상을 2017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일리노이 에반스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 동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 후, 아버지를 이어 법조인의 길을 걷지 않고 미국에 와서는 바나드칼리지 학사(역사전공)를 거쳐, 조지타운대에서 석사(러시아사)를, 시카고대에서 동양역사학 박사 학위(국동역사)를 취득했다.

시카고 로올라대 교수 및 메릴랜드주립 칼리지 파크 캠퍼스 세인트매리 칼리지에서 부학장을 거쳐 조지타운대 한국학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조 동문은 작고한 오기창 박사(가톨릭대 부총장 역임)와 1959년에 결혼해 슬하에 1남2녀가 있다. 큰 딸은 의사로 미네소타에 있고 팔로 알토에 거주하는 차녀는 이베이 법무실에 다니며 막내인 아



Longing for Mother

A Novel
Inspired by a True Story
Bonnie B.C. Oh

최근 조봉완 동문이 출간한 Longing for mother(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표지.

들 역시 시카고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영문 작품들은 아마존닷컴에서 구할 수 있다.

▶문의 이메일: bongwan.cho@gmail.com
장병희 편집위원

이민 1세가 첫 영어 장편소설로 남가주출판인협회상 수상

샘 장 동문, 징기스칸 손자 다룬 장편 역사소설 ‘바투 칸’ 출간



샘 장
(치대 68)

이민 1세가 영어로 장편소설을 써서 남가주 출판인 협회(Southern California Book Publicists Association)가 주는 상을 받고 나아가 런던의 북 페스티벌까지 진출해 상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그는 대학에서 영문학이나 소설을 전공한 것도 아닌 치대 출신으로 지금도 남가주에서 치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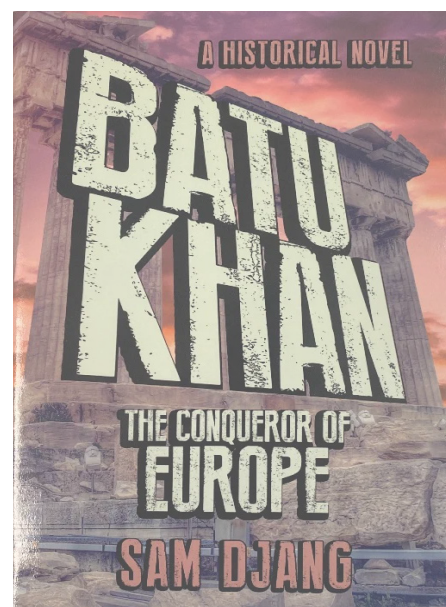
한국 이름 장석형, 샘 장(치대 68) 동문 이야기다. 그가 최근 자신의 두번째 영문 장편 역사소설을 출간했다. 몽골제국 칭기스칸의 손자로 13세기 유럽을 정복한 바투 칸에 대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으며 그의 유럽 정복 의미를 재조명한 책이

다. 역사, 재조명, 의미라는 단어가 무겁게 들릴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바탕한 소설인 만큼 책을 읽는 재미가 있다.

그는 이 책을 쓰기 위해 바투 칸 이름이 들어가는 책이란 책은 모두 읽었다. 그는 영어로 번역되지 않은 러시아 책 한 권 정도 못 읽었을 거라고 자신한다. 그렇게 바투 칸에 대해 10년을 공부해서 나온 책이 바로 ‘Batu Khan: The Conqueror of Europe’(바투 칸: 유럽의 정복자)이다.

그가 공부한 바투 칸은 유럽 연합군을 격파하고 유럽 국가를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면서 화약과 나침반, 종이 인쇄술 등 동양 문명을 유럽에 전해줘 유럽 근대화에 토대를 제공한 인물이다. 유럽은 그가 들고 간 화약으로 총을 만들고 종이 인쇄술로 만든 성경을 들고 나침반 항해술을 이용해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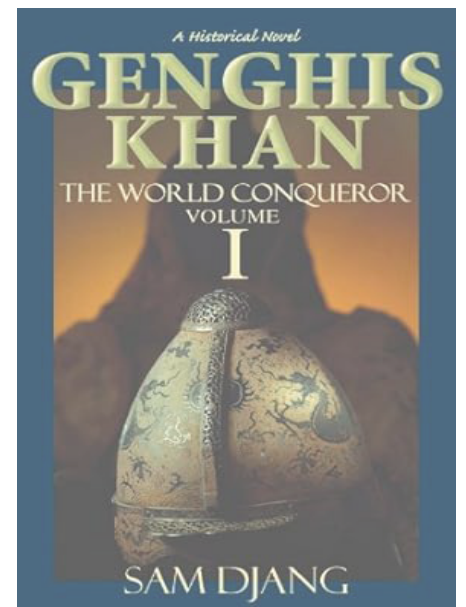
그가 쓴 ‘바투 칸’은 그가 30년 가까이 천착해온 그리고 2000년 첫 출간한 몽골제국 칭기스칸에 대한 소설 ‘칭기스칸’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3권으로 나온 이 책은 당시 한국에서 선풍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그는 TV방송과 신문 등 각종 인터뷰를 하며 얼굴을 알렸다. 그는 ‘칭기스칸’을 쓰기 위해 당시 비자도 거의 나오지 않던 몽골을 10차례나



최근 샘 장 동문이 출간한 ‘바투칸: 유럽의 정복자’ 표지.

방문하며 몽골 군대가 거쳐간 바이칼 호수의 흔적을 찾기도 했다.

이 책은 2011년 영문 ‘Genghis Khan the World Conqueror’로 출간돼 그해 그에게 남가주출판인협회가 주는 어윈 어워드(Best Historical Fiction Campaign 부문)를 안겨줬다. 그리고 이 책은 인도와 일본,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등지에서 도 번역 출간됐다.



샘 장 동문이 쓴 첫 영어 장편 소설 표지

장 동문은 “미국의 청년 지식층과 유럽인을 주 독자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한인 2, 3세대에게도 좋은 읽을 거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넷플릭스와 연계가 있는 동문이 읽고 연락을 줬으면 한다”고 특별 당부했다.

그의 책은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그의 웹사이트(www.batukhan.us)를 통해 저자와의 대화도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는 2025년 대학 종합화 5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또 다른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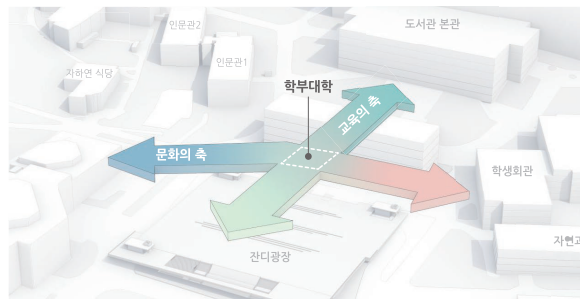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혁신플랫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노력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서울대 발전을 위한 노력에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SNU Commons 기금

현재 행정관이 자리한 관악캠퍼스의
중심에 학부대학과 SNU Commons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배움과 소통,
문화교류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공통된 역량과
창의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SNU 목적형 기금

사회공헌기금: 해외 지역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글로벌 책무를
다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융복합연구기금: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수행의 풍토를 조성하고, 세계적인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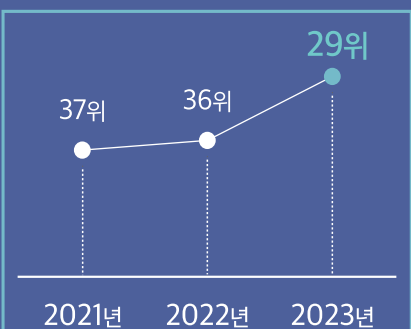


※ 사진출처 : ©서울대학교 사진갤러리

서울대학교 국제 랭킹

서울대학교는 거례의 대학에서
세계의 대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QS 세계대학 평가 29위



QS 세계대학 학과별 순위



세계 50위 이내
(37개 학과, 2023년 발표)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간단 참여신청서 작성 후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america@snu.ac.kr 로 메일 보내주세요
담당자가 참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SNU Commons 기금 간단 참여신청서

성명: _____ 연락처: _____
학과(특별과정): _____
약정금액: _____

Pay to the order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J | 222 Bridge Plaza South Suite 720' Fort Lee' NJ 07024 Tel +1-212-768-9144 Fax +1-212-768-4494 E-mail kenneth@klcpagroup.com

LA | 2410 W. James M.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1-213-435-1974 E-mail america@snu.ac.kr

SEOUL | SNU Research Park Main Building,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Tel +82-2-871-8004 E-mail snuf@snu.ac.kr

하와이서 전 서울대 총장 유기천 박사 추모 심포지엄

1958년 예일대 박사 받은 세계적 법학자
박정희 정권서 탄압 받다 미국으로 망명
법대 제자들이 재단 설립 매년 학술대회

지난 8월 25일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는 고 월송 유기천(1915-1998) 박사를 추모하는 학술심포지엄 'Law and Culture in Korea'가 개최되었다.

월송은 1960년대 제9대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낸 세계적 법학자로 그의 사후 제자들이 유기천재단(Paul K. Ryu Foundation)을 설립하여 20주년을 맞게 된 것이다.

30여 역대 총장 가운데 재단이 설립된 유일한 사례이다. 이런 뜻깊은 행사가 하와이에서 개최된 데에는 특별한 뜻이 있다.

유기천 박사는 1958년 예일대학교에서 '한국문화와 형사책임'이란 논문으로 한국인 최초의 법학박사(SJD) 학위를 획득하였다. 이듬해 하버드 로스쿨에서 같은 형법학을 전공하는 폴란드 출신 유대계 헬렌 실빙(1906-1993) 박사와 결혼하였다. 1959년 6월에 하와이대학교에서 주최하는 동서철학자 대회에 참가하여 '문화이해에서의 장의 이론(Field Theory in the Study of Culture)'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44세의 신진학자로 한국의 인문사회과학계를 대표하여 세계 지성인들로부터 주목을 끌었다. 그리하여 '세계지식인백과사전'에도 수록되었다.

그후 서울법대 학장으로 사법대학원을 설립하고 아시아재단의 후원을 받아 한국 최초의 판례집을 발간하는 등 한



유기천 박사(오른쪽)와 아내 헬렌 실빙 여사

국법학교육의 기초를 닦고, 한국형법전을 영어와 독일어로 번역 출간하였다. '법을 통한 세계평화' 등 각종 세계학회에서 발표하여 한국법학의 세계화에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가 수립되고 이른바 개발독재에 대항하여 인권보호를 주장하는 그는 탄압을 받았다. 1972년 하버드의 라이샤워(E. Reischauer)교수가 김종필 총리에게 강력한 탄원서를 써서 간신히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부인과 함께 푸에르토 리코 대학에서

비교형법을 강의하고 만년은 샌디에고에서 살다 재미 26년 만에 그곳에서 서거하였다. 유해는 경기도 고양의 산정현교회 묘지에 부인과 나란히 묻혀있다.

1998년 법대 제자들이 유기천기념사업회를 조직하였고, 그것을 기초로 2004년 유기천재단을 발족하여 매년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출간하였다. 그리고 후학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학술상을 시상하였다.

이번 하와이 심포지엄은 이러한赫赫한 학문 활동을 한 유기천 총장의 업적을 세계학문의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앞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학계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으려 하였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유기천 문고 (Paul K. Ryu Collection)와 유기천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이번 심포지엄 발표는 최종고(법대 24회) 이사장, 주광일(법대 19회) 변호사, 이영란(법대 25회) 숙대 명예교수 동문과 백태웅 소장이 하였고, 유훈(법대 8회), 이상건(법대 19회, 하와이대 경제학교수), 구상진(법대 26회), 성낙인(법대 27회, 26대 총장), 강동범(법대 34회) 동문이 참석하였다.



서윤석 (의대 62)

동문시

대학로大學路의 나무

플라타너스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가지마다 많은 새 생명을 싹 틔웠다
베트남 전선에서 용감했던 김수현 전함의 그 주인공 님은
1969년 해병 2여단 청룡부대 이규학 해병 소위 님은
빛나던 모습들
그 소중한 일들이 산화散華했다

목숨과 피와 땀으로 75년간에 이룬 우리의 기적의 역사
들리나? 바쁜 도시의 소음 속에서 나는 힘찬 전동차소리
보라! 빌딩이 솟아오른 한강변을
밤이면 은하수 물결 같은 자동차 불빛을
비티에스BTS가 세계를 휩쓰는 무대에서
누가 대학로의 옛 고난을 기억하라

1963년을 회상하자
독재에 항거하던 학생들의 몸부림들
그래도 빈곤을 해결한 강력한 지도자의 의지로
우린 이제 베르린 시민처럼
풍족한 자유로운 시민이 되었구나
넉넉한 가슴을 활짝 펴고 오대양을 넘나들며
황금색 낙엽을 봉투에 담는 감사의 계절
우러러보이는 나무가 눈부시구나



김수현 청룡부대 군의관, 서울 의대 졸업 후 1967년 1월 월남 짜빈박 전투에서 부상 병을 돌보다가 머리에 맞은 총상으로 전사. 정부는 충무 무공훈장을 수여, 진해 해군 의료원 뜰에 충훈탑을 설립하고 PKG-729 유도탄 고속함을 김수현함으로 명명했음.

“팬데믹 기간 나 자신을 돌아봤다” LA동문 12명 참여 공동 전시회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미술계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김병연(공대68) 동문이 관장인 파크뷰 갤러리에서 동문 작가 12명 등이 참가하는 공동 미술전시회가 10월5일(목)부터 14일(토)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인터미션(INTERMISSION)'이다.

음악용어로 공연과 공연 사이의 휴게시간을 의미한다.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일상을 쉬면서 자신을 돌아봤던 창작의 순간을 뜻하는 듯하다.

이번 전시회에는 LA의 명망있는 화가 20명이 참가해 최신작을 발표한다. 전시회에 참가하는 서울대 동문들로는 강영일 동문을 비롯해 강창환, 김경옥, 김구



자, 박영구, 박혜숙, 신정연, 신혜자, 오성주, 이상훈, 주선희, 홍선례 등이다. 전시시간은 오전11시부터 오후5시다.

오프닝 리셉션은 6일(금)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파크뷰 갤러리에서 열린다.

▶주소: 2410 James M Wood Blvd LA, CA 90006(작가의 집)



장소현
(미대 65, 시인 · 극작가)

세계로 뻗어가는 K-문화의 열기가 대단한 모양이다. 그 K-문화 중에서 가장 걸림돌이 많은 것이 문학과 연극이다. 언어라는 장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문학의 세계 진출이라는 주제가 나올 때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번역의 문제다. 특히 노벨 문학상의 계절이 오면, 우리 문학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려면 훌륭한 번역이 필수적이라는 당연한 이야기가 단골 메뉴처럼 나오곤 한다. 그래서 이중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유능한 교포 2세 문학인이 소중하다, 빨리 길러야 한다는 등 번역 타령도 요란하다.

그런데, 최근 와서는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인공지능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작곡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인공지능이 쓴 책, 사람과 인공지능이 합작으로 쓴 책이 발간되어 잘 팔린다고 한다. 게다가 앞으로 인공지능이 예술계를 얼마나 장악할지 예측조차 어려울 지경이라고 하니 어지럽다.

이런 판이니, 번역 짬이야 식은 죽 먹기라는 이야기다. 무한한 창조적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완전한 창작은 어려울지 몰라도, 창작된 것을 다른 말로 옮기는 번역 같은 기능적 작업은 인공지능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에서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0.9%가 번역가, 통역사를 꼽았다.

특히, 챗 GPT라는 천재(?)의 등장으로 번역가들이 바짝 긴장하는 모양이다. 다양한 의견이 오락가락 요란하다. 현역 전문 번역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우 심각해 보인다.

일부 특수한 영역을 제외하면, AI가 인간 번역가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는 의견부터 AI가 인간 번역가를 돕는 도구로서 쓸모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의견, 문학 작품의 번역은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고 본다는 의견, 번

역을 잘하려면 작품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하는데 AI엔 ‘마음’이 없지 않은가 라는 의견까지 매우 다양하다.

결국 이들의 공통된 생각은, 인간 번역가가 생존할 수 있으려면 AI를 압도하는 ‘고품질’을 내놓아야 다는 것. 결국은 장인 정신을 가진 번역가만 살아



남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기계가 인간을 능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창조적인 예술 분야에서는 그렇다. 정신, 감정, 마음, 영혼, 사상, 철학…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신문 기사나 논문, 보도자료, 리포트 같

은 실용적인 글쓰기에서는 형편이 많이 다르다. 기계가 더 잘 할 여지가 많다. 게다가 모든 사람이 기계보다 훌륭할 수는 없으니 문제다.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나는 인공지능 작가만큼 글을 잘 쓸 자신이 없다. 인공지능처럼 수많은 문학 작품을 제대로 읽은 큰 정보를 가진 것도 아니고, 상상력이라고 해봤자 보잘 것 없다. 게다가 독자들이 어떤 글을 좋아하는지도 잘 모른다. 기계가 흉내 낼 수 없는 사람냄새라는 것도 알고 보면 고약한 썩네 냄새일 테니, 도저히 인공지능을 따라잡을 자신이 없다.

자신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애시당초 경쟁이 안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쓸 것이냐 하면 그건 아니고, 쓸 수 있을 때까지는 악착같이 쓰기는 하겠지만, 어쩐지 서글프다. 기계와 경쟁해야 하고, 많은 경우 기계보다 못할 수도 있다니….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트랙트랙’의 평화공존

러시아 위협론이 불거질 때마다 크렘린 고위관리들이 약속이나 한 듯 꺼내드는 카드가 있다. 이른바 ‘트랙트랙(TRACTRAC)’이라는 것이다. 미국과의 평화공존을 일컫는 용어다. 무슨 거창한 정책인 줄 알겠지만 알고 보면 쓴웃음이 나온다. 영화제목의 첫 글자를 따 지어낸 말이니까. ‘러시아인들이 몰려온다, 러시아인들이 몰려온다(The Russians Are Coming, The Russians Are Coming).’ 적국이나 다름없는 미국의 할리우드가 만든 영화인데 러시아가 왜 영광할까?

무대는 동부 뉴잉글랜드의 어느 섬. 주민 200여 명에 불과한 작은 어촌이다. 9월의 어느날 아침 소련의 잠수함이 이곳서 좌초한다. 미국을 정탐하려다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바람에 사단이 난 것이다.

꼼짝없이 나포될 위기에 처하자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합장.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병사 9명을 골라 한밤중 몰래 상륙을 시킨다. 반자동 파발총으로 무장한

소련 병사들의 임무는 대형 모터 보트를 훔치거나 빼앗아 오는 것. 잠수함을 심해로 끌어내기 위해서다.

러시아식 영어를 구사하는 병사들은 주민들과의 소통에 애를 먹는다. 이 과정에서 폭소가 터져나오고, 처음엔 노르웨이 어부라고 둘러대지만 얼마안가 들통난다. ‘러시아인들이 몰려온다’는 급보에 놀란 주민들은 샷건을 들고 나와 붉은 군대 침략자들에 맞서는데….

코미디물이지만 당시 미국인들의 ‘레드 콤플렉스’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

영화는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이 일어나면서 급반전을 이룬다. 교회 종탑에 올라가 대치극을 구경하던 소년이 굴러 떨어지며 지붕 빗물받이 홈통에 대롱대롱 매달린 것. 즉각 휴전에 합의한 양측은 인간 피라미드를 만들어 소년을 위험에서 구해낸다. 인류애가 이들을 하나로 묶어줬다고 할까.

상황이 이대로 종료되는가 싶었으나 갑자기 미 공군기 편대가 나타나면서

일이 꼬인다. 하이лай트는 섬 주민들의 소련군 에스코트 장면. 공군기가 폭격을 하지 못하게 인간피를 만든다. 덕분에 병사들은 무사히 잠수함에 올라타고. 경례를 붙이며 석별의 정을 나누는 소련군. 모래톱에 었혔던 배는 마침 밀물이 들어와 바다 속 깊이 잠수하며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영화가 개봉된 건 1966년. 이른바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생한지 4년도 채 안돼 소련과의 냉전이 극을 치달을 때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 소련이 핵탄두 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하려다 미국과 핵전쟁 일보직전까지 갔던 사건이다.

당시 분위기로 봐선 상영이 금지되거나 출연진이 연방수사국(FBI)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해도 결코 놀랄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해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제작비는 4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수입은 2,200만 달러가 넘어 시쳇말로 대박을 터트렸다.

흥행에만 성공한 게 아니다. 이듬해 골

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남우주연상(앨런 아킨)을 따내는 등 예술성도 인정받았다. (아킨은 지난 2007년 ‘리틀 미스 선샤인’으로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을 받아 할리우드 명품배우의 반열에 올랐다. 지난 6월 29일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영화는 크렘린 궁에서도 상영돼 당시 소련 지도자들이 감동한 나머지 눈물을 흘렸다는 보도가 나올 만큼 영향이 컸다.

소련연방이 붕괴된 후에도 러시아의 외교정책 근간은 미국과의 밀월관계 구축이었다. ‘트랙트랙’의 전통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블라디미르 푸틴의 집권 이후부터다. 급기야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러시아는 국제사회로부터 왕따의 대상이 됐다.

얼마전엔 북한과 ‘무기거래’ 설까지 불거져 나와 충격을 던져주기도 했다. 푸틴이 이 영화를 한번쯤 봤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워싱턴주 -故고광선 (공대 57)

플래티넘이사 (\$50,000이상)
조지아 - 주종광 (약대 60)
조지아 - 허지영 (문리 66)
뉴욕 - 조상근 (법대 69)

골드이사 (\$10,000이상)
남가주 - 김경숙 (간호대 68)
남가주 - 김일영 (의대 65)
남가주 - 노명호 (공대 61)
남가주 - 박종수 (수의 58)
남가주 - 박창규 (약대 59)
남가주 - 서치원 (공대 69)
남가주 - 성낙호 (치대 63)
남가주 - 심화섭 (약대 61)
남가주 - 이기준 (법대 54)
남가주 - 이병준 (상대 55)
남가주 - 이흥표 (의대 58)
남가주 - 한홍택 (공대 60)
남가주 - 벤자민 홍 (문리대 53)
남가주 - 오드라 홍 (음대 70)
남가주 - 한귀희 (미대 68)
네바다 - 정상진 (상대 59)
뉴욕 - 김창수 (약대 64)
뉴욕 - 이정자 (간호대 59)
뉴잉글랜드 - 박영철 (농대 64)
뉴잉글랜드 - 윤상래 (수의대 62)
뉴잉글랜드 - 정선주 (간호 68)
뉴잉글랜드 - 최홍균 (공대 69)
북가주 - 김정희 (음대 56)
북가주 - 민병곤 (공대 65)
북가주 - 전해경 (문리 67)
시카고 - 이용락 (공대 48)
워싱턴주 - 양남주 (명예이사)
워싱턴DC - 이태영 (법대 60)
조지아 - 김현희 (간호대 59)
코네티컷 - 오인석 (법대 58)
필라델피아 - 김영우 (공대 55)
필라델피아 - 이만택 (의대 52)

하트랜드 - 이상강 (의대 70)
하트랜드 - 김경숙 (가정 70)

실버이사 (\$5,000이상)
남가주 - 故김원경 (약대 59)
남가주 - 김병연 (공대 68)
남가주 - 박인창 (농대 65)
남가주 - 이종도 (공대 66)
남가주 - 이종묘 (간호대 69)
남가주 - 정재훈 (공대 64)
루지애나 - 강영빈 (문리대 58)
워싱턴주 - 김재현 (공대 72)
워싱턴DC - 남옥현 (경영대 84)
조지아 - 김경숙 (사대 64)
조지아 - 김태형 (의대 57)
조지아 - 임수암 (공대 62)
필라델피아 - 신익석 (공대 53)
미네소타 - 황효숙 (사대 65)

종신이사 (\$3,000이상)
남가주

故노재성 (법대 58)
故서영석 (의대 55)
故오재인 (치대 33)
故윤낙승 (의대 60)
강신용 (사대 73)
곽웅길 (문리대 59)
권기홍 (의대 60)
권봉성 (문리대 64)
김기형 (상대 75)
김대중 (의대 70)
김동훈 (의대 71)
김보연 (간호대 63)
김상찬 (문리 65)
김성호 (법대 64)
김수영 (사대 57)
김재영 (농대 62)
김정빈 (공대 66)
나두섭 (의대 66)
류재풍 (법대 60)
박명근 (상대 63)

박용필 (문리대 66)
박원준 (공대 53)
박윤수 (문리대 48)
방명진 (공대 73)
백길영 (의대 58)
백만일 (공대 64)
서동영 (사대 60)
신건호 (법대 53)
신영찬 (의대 62)
심상은 (상대 54)
안병일 (의대 63)
오홍조 (치대 56)
이근원 (공대 67)
이명선 (상대 58)
이세열 (사대 57)
이승훈 (상대 74)
이채진 (문리대 55)
이청광 (상대 61)
이호진 (간호대 74)
임낙균 (약대 64)
임홍오 (의대 57)
전경배 (의대 69)
전희택 (의대 58)
정동구 (공대 57)
정임현 (간호대 72)
정철룡 (의대 55)
제영혜 (가정대 71)
조용원 (문리대 66)
조한원 (의대 57)
차민영 (의대 76)
차종환 (사대 54)
하기환 (공대 66)
한효동 (공대 58)
홍성선 (약대 72)
홍종화 (약대 74)

뉴욕

故김광호 (문리대 62)
故한창섭 (문리대 57)
강에드워드 (사대 60)
고애자 (음대 57)

권영국 (상대 60)
김승호 (공대 71)
김영용 (치대 55)
김종률 (사대 51)
김한중 (의대 56)
김해암 (의대 52)
배정희 (사대 54)
서영숙 (간호대 67)
석창호 (의대 66)
손진태 (약대 67)
신응남 (농대 70)
윤종숙 (약대 66)
이강홍 (상대 60)
이기영 (농대 70)
이대영 (문리대 64)
이영재 (상대 58)
이재덕 (법대 60)
이재량 (상대 61)
이전구 (농대 60)
이준형 (공대 47)
이태호 (상대 58)
최수용 (상대 55)
최영태 (문리대 67)
추재욱 (의대 57)
한태진 (의대 58)
허선행 (의대 58)

뉴잉글랜드

故고일석 (보건대 69)
故박경민 (의대 53)
김광수 (문리대 73)
고종성 (사대 75)
김문소 (수의대 61)
김용구 (공대 66)
오세경 (약대 61)
윤선홍 (치대 64)
이의인 (공대 68)
전신의 (문리대 57)
정정욱 (의대 60)
정태영 (문리대 71)
조만연 (상대 58)

홍지복 (간호대 70)

워싱턴DC

공순옥 (간호대 66)
방은호 (약대 43)
박평일 (농대 69)
서희열 (의대 57)
오인환 (문리대 63)
이내원 (사대 58)
이선구 (문리 65)
이윤주 (상대 63)
최재귀 (미대 63)
최지원 (의대 61)

미시간

故남상용 (공대 52)
故정태 (의대 57)
장병진 (공대 61)

샌디에고

임천빈 (문리대 61)

북가주

강재호 (상대 57)
손석보 (공대 68)
윤정옥 (약대 50)
최경선 (농대 65)
한만섭 (공대 49)

시카고

강영국 (수의대 67)
심상구 (상대 63)
이재희 (치대 67)
장윤일 (공대 60)
조봉완 (법대 53)
최의필 (의대 53)
한재은 (의대 59)

오레곤

김상순 (상대 67)
이은상 (상대 52)

미네소타

강연식 (사대 58)
권기현 (사대 53)
김권식 (공대 61)
김태환 (의대 58)
남세현 (공대 67)
민홍기 (문리대 61)
변우진 (인문대 81)
조형준 (문리대 62)

휴스턴

박진섭 (의대 67)

오하이오

김용현 (경영 66)
이지우 (의대 68)

워싱턴주

故김영일 (공대 53)
이명자 (간호대 74)
이희백 (의대 55)
임현민 (공대 84)

조지아

김용건 (문리대 48)

커네티컷

故유시영 (문리대 68)

플로리다

김종권 (의대 63)
임필순 (의대 54)

텍사스

박태우 (공대 64)
이광연 (공대 60)
조시호 (문리대 59)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리대 55)
김현영 (수의대 58)
서종민 (공대 64)
손재욱 (가정대 77)
신성식 (공대 56)
주기목 (수의대 68)

하틀랜드

김명자 (문리대 62)
김시근 (공대 72)
배규영 (사대 68)
오명순 (가정대 69)
이교락 (의대 53)

하와이

故최경윤 (사대 51)

알래스카

윤제중 (농대 55)

이사 구분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골드이사
\$10,000 이상

실버이사
\$5,000 이상

종신이사
\$3,000 이상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6 James M Wood Blvd. Unit B, Los Angeles, CA 90006-2005 / 213-908-5586

www.snuaa.org
news@snuaa.org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 회기: 2023.7.1 - 2024.6.30; 제2차 회기: 2024.7.1 - 2025.6.30) 볼드는 제 2차회기

남가주 강경수 (법 58) 강동순 (법 59) 강윤희 (간 46) 강창만 (의 58) 강춘자 (간 69) 강호석 (상 81) 고석규 (치 65) 권기상 (대 72) 권봉성 (문 64) 김건진 (문 62) 김영배 (미 61) 김경옥 (미 61) 김경자 (미 60) 김난영 (공 53) 김원택 (공 65) 김동산 (법 59) 김명숙 (농 58) 김문엽 (농 83) 김범수 (문 61) 김병완 (공 59) 김석홍 (법 59) 김성호 (법 64) 김순갈 (법 54) 김순자 (치 57) 김영덕 (법 58) 김용태 (문 61) 김일영 (의 65) 김재식 (의 61) 김재영 (농 62) 김정애 (간 69) 김정호 (농 59) 김종환 (법 58) 김준일 (공 62) 김창진 (공 77) 김태환 (문 78) 김태윤 (법 53) 김희창 (공 64) 나두섭 (의 66) 나승욱 (문 59) 노명호 (공 61) 노영일 (의 64) 문병길 (문 61) 박영근 (상 63) 박민식 (수 65) 박부강 (사 64) 박상원 (대 20) 박용 (문 89) 박은숙 (미 62) 박인수 (농 64) 박인철 (농 65) 박일우 (의 70) 박일하 (치 56) 박종건 (의 56) 박중수 (수 58) 박찬호 (농 63) 박해욱 (간 69) 박호현 (의 52) 박홍근 (공 64) 배동원 (공 65) 백옥자 (음 71) 백혜란 (미 70) 벤자민 홍 (문 53) 서동영 (사 60)	서명희 (농 67) 서세진 (음 62) 손갑수 (약 59) 손기용 (의 55) 손학식 (공 61) 송영국 (문 81) 송요준 (의 64) 신동국 (수 76) 신영찬 (의 62) 신정연 (미 61) 양승문 (공 65) 이성환 (상 56) 오찬수 (약 57) 오형원 (의 53) 위중민 (공 64) 유덕영 (공 57) 유이중 (농 74) 이경희 (치 55) 윤경민 (법 55) 윤영돈 (법 59) 윤희선 (치 65) 이강훈 (치 65) 이건일 (의 62) 이경희 (인 83) 이기준 (법 54) 이범식 (공 61) 이상무 (의 56) 이서희 (법 70) 이성자 (간 76) 이소희 (의 61) 이영현 (간 70) 이용한 (공 64) 이익삼 (사 58) 이재권 (법 56) 이정근 (사 60) 이정남 (공 63) 이정화 (공 52) 이종묘 (간 69) 이준호 (상 65) 이창신 (법 57) 이재진 (문 55) 이호 (음 92) 임동규 (미 57) 임동호 (약 55) 임문빈 (상 58) 임석준 (공 50) 장기열 (치 55) 장기창 (공 56) 장대욱 (음 57) 장동석 (문 66) 장문섭 (공 69) 장원경 (미 73) 장윤일 (공 60) 장원희 (사 54) 장정용 (미 64) 전경배 (의 69) 전원일 (의 77) 전상욱 (사 52) 정동주 (생 72) 정예현 (상 63) 정연웅 (상 63) 정재형 (약) 정철룡 (의 61) 정현진 (간 68)	정형민 (문 71) 정혜령 (간 72) 정황 (공 64) 제영혜 (생 71) 조경애 (음 64) 조재국 (농 67) 주정래 (상 65) 차중환 (사 54) 최복철 (공 70) 최영구 (상 61) 임동규 (미 57) 하계현 (공 64) 한귀희 (미 68) 한동수 (의 60) 한성구 (공 53) 한일영 (공 62) 한정현 (치 55) 홍성선 (약 72) 홍선일 (공 71) 홍수웅 (의 59) 황건홍 (공 55) 황현상 (의 55) 뉴욕 강상진 (의 53) 고애자 (음 57) 김승호 (공 71) 김영무 (공 75) 김영웅 (치 55) 김영희 (법 80) 김용연 (문 63) 김정희 (간 69) 김종원 (생 58) 김진자 (간 60) 김창수 (약 64) 김정화 (치 65) 김태일 (공 68) 김학자 (간 59) 김해암 (의 52) 김현중 (공 63) 민인기 (의 67) 리준무 (음 65) 박경희 (음 57) 박은규 (약 72) 배상규 (약 60) 서충선 (사 57) 선충철 (의 59) 성기로 (약 57) 송웅길 (대학원 69) 신응남 (농 70) 안태홍 (상 65) 유인숙 (간 63) 유재섭 (공 65) 육순재 (의 63) 윤병남 (사 62) 이강욱 (공 70) 이문봉 (미 76) 이충욱 (농 69) 이충호 (의 63) 이상근 (상 84) 이유성 (사 57) 이홍우 (공 50) 전병삼 (약 54) 정동성 (상 58)	정화영 (사 61) 조대영 (공 61) 조득환 (의 61) 조중수 (공 64) 조태환 (상 56) 진봉일 (공 50) 차국만 (상 60) 최영태 (문 67) 최승웅 (의 61) 최현무 (법 69) 한병용 (문 71) 허경력 (의 71) 허선행 (의 58) 허정열 (사 63) 뉴잉글랜드 곽노균 (상 51) 김경일 (공 58) 김선혁 (약 59) 박영철 (농 64) 송미자 (농 62) 윤상래 (수 62) 이규진 (약 60) 이금하 (문 69) 이은주 (음 73) 이의인 (공 68) 임영호 (공 72) 정선주 (간 68) 정정욱 (의 60) 임영호 (법 80) 최선의 (문 69) 한서동 (의 61) 네바다 김삼순 (상 67) 김영중 (치 66) 김정수 (문 69) 김용재 (의 60) 정상진 (상 59)	미네소타 성유진 윤정식 (농 86) 송재현 (의 45) 안영학 (문 57) 유기정 (간 72) 육길원 (사 59) 윤경순 (사 61) 윤덕상 (치 62) 이건정 (공 69) 이동균 (공 75) 이시영 (상 45) 이용락 (공 48) (고)이윤모 (농 57) 이종일 (의 65) 전현일 (농 62) 최혜숙 (의 53) 홍건 (의 64) 홍정일 (약 57) 황소나 알래스카 오레곤 김영자 (간 56) 박희진 (농 78)	박성수 (공 59) 박영훈 (공 72) 신규영 (공 64) 안호삼 (문 58) 위장호 (의 67) 이관모 (공 55) 이성원 (공 65) 이창한 (공 56) 이흥기 (공 62) 임승배 (문 66) 임정란 (음 76) 전병련 (공 54) 정춘임 (간 67) 조태욱 (사 60) 최정진 (상 65) 홍병의 (공 68) 황동하 (의 65) 샌디에고 고경하 (공) 남창우 (사 56) 이문상 (공 62) 오계환 (공 64) 윤진수 (의 57) 이문상 (공 62) 임춘수 (의 57) 시카고 강영국 (수 67) 구경희 (의 59) 김길준 (의 59) 김규호 (의 58) 김성일 (공 68) 김승주 (간 69) 김윤하 (공 66) 김영중 (문 69) 민영기 (공 65) 박동수 (정 58) 박정일 (의 61) 박창욱 (공 56) 소진문 (치 58) 송재현 (의 45) 안영학 (문 57) 유기정 (간 72) 육길원 (사 59) 윤경순 (사 61) 윤덕상 (치 62) 이건정 (공 69) 이동균 (공 75) 이시영 (상 45) 이용락 (공 48) (고)이윤모 (농 57) 이종일 (의 65) 전현일 (농 62) 최혜숙 (의 53) 홍건 (의 64) 홍정일 (약 57) 황소나 알래스카 오레곤 김영자 (간 56) 박희진 (농 78)	최용성 (의 55) 한국남 (공 57) 한영준 (사 60) 오하이오 명인재 (자 75) 박훈 (공 74) 이영웅 (의 57) 워싱턴 DC 권철수 (의 68) 김기봉 (공 63) 김기환 (공 67) 김내도 (공 62) 김부근 (의 58) 김영란 (사 58) 김윤호 (공 64) 김희주 (의 62) 나연수 (사 57) 남춘일 (사 69) 박인봉 (의 69) 박찬모 (공 54) 박홍우 (문 61) 백용현 (공 64) 신경은 (문 65) 우재형 (상 54) 유영신 (인 74) 유영준 (의 74) 이건형 (수 54) 이내원 (사 58) 이서구 (문 61) 이선구 (문 65) 이성배 (수 57) 이영덕 (사 61) 이진상 (공 57) 이철수 (공 61) 임관록 (간 72) 정영자 (사 56) 정원자 (농 62) 조병선 (의 65) 천권희 (간) 최대영 (의 73) 최재귀 (미 63) 워싱턴주 김교선 (법 54) 김인배 (수 59) 류성열 (공 72) 변동혜 (법 58) 안승적 (농 59) 윤석진 (문 64) 윤태근 (상 69) 이길승 (상 57) 이명자 (간 74) 이희백 (의 55) 정영자 (사 56) 최준환 (농 58) 유타 김인기 (문 57) 조지아 김영서 (상 54) 김종구 (수 73)	김현희 (간 59) 백낙영 (상 61) 서광모 (공 65) 오경호 (수 60) 이종석 (의 54) 임수암 (공 62) 정선헌 (공 65) 최덕순 (간 58) 한성수 (의 54) 캐롤라이나 이종영 (음 58) 커네티컷 최창송 (의 52) 테네시 김경택 (공 75) 텍사스 김창환 (공 81) 유환 (농 56) 윤영주 (문 60) 진기주 (상 60) 플로리다 김성준 (의 55) 김중권 (의 63) 서종민 (공 64) 정의철 (의 55) 이민우 (의 67) 이만택 (의 52) 하재청 (문 67)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 55) 강준철 (사 59) 김국간 (치 64) 서의원 (공 66) 성정호 (약 59) 신선자 (사 60) 안세현 (의 62) 유영걸 (의 70) 윤정나 (음 57) 이규호 (공 56) 이성숙 (생 74) 이수경 (자 81) 이홍일 (상 70) 조화연 (음 64) 전무식 (수 61) 전방남 (상 73) 정흥택 (상 61) 조정현 (수 58) 지흥민 (수 61) 한동휘 (문 57) 한수웅 (의 55) 한용오 (보 70) 하와이 김용수 (농 75) 김윤근 (공 63) 이재형 (수 61) 최경윤 (사 51) 하인환 (공 56)	하트랜드 김경숙 (가 70) 김태찬 (음 80) 배규영 (사 68) 오명순 (생 69) 이상강 (의 70) 이주현 (미 92) 이치현 (약 77) 임소연 (음 91) 조원지 (문 63) 휴스턴 김영일 (의 55) 박석규 (간 59) 박태우 (공 64) 진기주 (상 60) 최성호 (문 58) 최용천 (의 53) 이윤성 (수 81) 이은애 (음 81) 록키마운틴스 송요준 (의 64) 전남인 (사 72) 에리조나
---	--	--	---	--	---	---	---	---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2023.7.1 - 2024.6.30

일반후원금 남가주 임낙균 (약 64) 10,000 송영두 (공 59) 200 백옥자 (음 71) 200 이범식 (공 61) 200 이상대 (농 85) 500 한귀희 (미 68) 50 전상욱 (사 52) 1000 이범식 (공 61) 200 한정현 (치 55) 500 뉴욕 신응남 (농 70) 500 김해암 (의 52) 100 리준무 (음 65) 200 윤철 (문 54) 200 허선행 (의 58) 200 북가주 이성원 (공 65) 200 필라델피아 최창송 (의 52) 500 하트랜드 이상강 (의 70) 41,000	네바다 김삼순 (상 67) 200 미시간 이성길 (의 65) 200 커네티컷 최창송 (의 52) 500 샌디에고 임춘수 (의 57) 300 워싱턴DC 박평일 (농 69) 500 권철수 (의 68) 200 서윤석 (의 62) 200 플로리다 김중권 (의 63) 200 시카고 소진문 (치 58) 200 뉴잉글랜드 윤상래 (수 62) 1,000 테네시 김경택 (공 75) 200 휴스턴 진기주 (상 60) 1,000	업소록 후원금 남가주 서동영 (사 60) 240 김원택 (공 65) 240 강호석 (상 81) 240 이종묘 (간 69) 240 뉴욕 신응남 (농 70) 240 장학기금 시카고 이용락 (공 48) 3,000 워싱턴 DC 권철수 (의 68) 200 뉴욕 선충철 (의 59) 100 신응남 (농 70) 200 홍성선 (약 72) 100 튀르키예 기부금 남가주 서진 (간) 3,000 뉴욕 신응남 (농 70) 200	광고후원금 남가주 미주재단 2,000 박수경 (생 84) 600 홍훈정 (음 70) 300 이병준 (상 55) 1,500 이경희 (인 83) 300 모교발전기금 워싱턴 DC 권철수 (의 68) 100 오레곤 김영자 (간 56) 100 Website 광고 남가주 김자성 (의 79) 1,000 Brain Network 뉴욕 신응남 (농 70) 100	Charity Fund 필라델피아 신익석 (공 53) 5,000 알 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월 말일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17@gmail.com
---	---	--	--	---

남가주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T: 213-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CPA & Accounting Corp.	
장 준 (인문 85)	
T: 818-722-2811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818-772-2811 jun@junchangcpa.com 213-272-2460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70)	
T: 213-383-8553 kimandhwang@cs.com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69)	
T: 213-480-0070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jennielee@gmail.com	
30 Corporate Park Suite 207, Irvine, CA 92606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Haitai Inc.)	
정정우 (수의대 74)	
T: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의료 / 병원	
Seoul Medical Group	
차민영 (의대 76)	
T: 213-480-7770	
520 S. Virgil Ave.#507, LA, CA 90006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5002 / drcchung@yahoo.com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Ja Sung Kim Psychiatrist Clinic, APC	
김자성 (의대 79)	
T: 213-797-5953	
505 Shatto PL. #202, LA,CA 90020-1777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 714-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의료 / 치과	
Steve Ko, DDS	
고석규 (치대 65)	
T: 818-988-6393	
7222 Van Nuys Bl., Van Nuys, CA 91405	
Choi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 714-638-8230/ markchoirx@gmail.com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ddssh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의료 /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의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 / 운송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작가의 집	
김병연 (공대 68)	
T: 213-380-3000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뉴욕 NY·NJ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UL-2, Flushing, NY 11358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 Financial Advisor	
윤의규 (상대 82)	
T : 201-978-7055	
560 Sylvan Ave. suite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edwardek.yun@edwardjones.com	
의료 /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200,Fort Lee,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T : 212.879.2322
230 East 73rd St, Suite 1A, New York, NY 10021
E-mail : haeahm@aol.com
박범렬 소아과
박범렬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호 소아과
박종호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의대)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의료 /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워싱턴 DC MD·VA·MN
기계 / 기술 / 전자
Drivo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otechinc.com

EVS, Inc.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www.EVS-ENG.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cloan.com
필라델피아 PA
건축
Timothy Haahs & Asso.
손재욱 (생활과대 77)
T: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100, Blue Bell, PA 19422
www.timhaahs.com
의료 / 치과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오레곤 OR
엔지니어링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 503-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www.flonomix.com
기타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육 센터
서울대 언어교육원
T: 82-02-880-5488
klp@snu.ac.kr

세계여행!
다리 떨리기 전에
가슴 떨릴 때!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

US이주투어

www.usajutour.com

facebook.com/ajutour

twitter.com/usajutour

T.213-388-4000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종신이사	업소록 광고비	특별후원금
☐ \$200 ☐ \$500 ☐ \$1,000 ☐ \$_____	☐ \$100 (2023/7~2024/6, 1년) ☐ \$200 (2023/7~2025/6, 2년)	☐ \$3,000 이상 ☐ \$5,000 실버 ☐ \$10,000 골드 ☐ \$_____	☐ \$240 (2023/7월 ~ 2024/6월, 1년) ☐ \$480 (2023/7월 ~ 2025/6월, 2년) ☐ \$500 (2023/7월 ~ 2024/6월, 1년)	☐ Scholarship Fund (장학금) ☐ Charity Fund (나눔) ☐ Brain Network 후원금 ☐ 모교발전기금
일반광고비	Website 광고비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 USA 주소: SNUAA USA 2416 James M Wood Blvd. Suite B, Los Angeles, CA 90006		
☐ Full Size Color \$1,500 ☐ Full Size Black \$1,000 ☐ 1/3 Size Color \$400	☐ \$500 (1년, 3.5" x 2") ☐ \$1,000 (1년, 5" x 4.5")			
한국 이름:	영어 이름:	단과대:	학번:	지부:
E-mail:		Cell:		
현주소:		이전주소 (이전 시):		
업소명:	업소주소:	Tel:		
Check#:	Date:	Signature:		

제17대 미주동창회

회장 이상강(의)

상임고문: 김종섭(문),
고문: 박종수(수) 박창규(약) 이흥표(의)
정재훈(공) 하기환(공) 임낙균(약)
김병연(공) 성주경(상) 박평일(농)
김인중(농) 남윤호(문)

차기회장 황호수(사)

명예회장 노명호(공)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신응남(농)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김태찬(음) 이관후(공)
이종도(공)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차민영(의), 강성진(문)

집행부

사무총장: 김경숙(가)
총무국장: 백옥자(음)
재무국장: 임춘택(상)
IT국장: 심재호(공)/부국장 박문수(공, 워싱턴DC)
섭외국장: 안혜정(가)/함은선(음, 워싱턴DC)
홍보국장: 김승배(음)
오락국장: 임항균(사)
광고국장: 백정현(음)
문화국장: 김양희(음)/이주현(미, 캔사스)
사무장(간사): 박혜옥(간)

동창회보

발행인: 이상강(의)
편집고문: 김창수(약, 뉴욕)
편집장: 신복례(문)
편집위원: 장병희(문), 김양희(음), 이준수(공), 오명순(가, 캔사스)
장민구(공), 한정희(미, 워싱턴DC), 이영주(농, 뉴욕)

장학위원회

위원장: 박평일(농)

위원: 황경순(공), 이치현(약, 캔사스)
남성우(공), 김태환(자) 홍주선(상)

회칙위원회

위원장: 성주경(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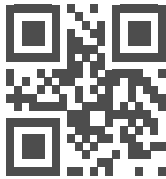
위원: 김용현(상), 이민언(법), 최경선(농), 한재은(의)
김재권(사), 최진석(법), 임항균(사), 배규영(사)

포상위원회

위원장: 이상강(의)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영태(미)
박현아(공)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818)395-1967 이메일 snuausa17@gmail.com 웹사이트 www.snuaa.org

주소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2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ausa30@gmail.com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 **김경무**(공대69) T: (213)210-1110
kyungmookim@yahoo.com
차기 회장 | **임춘택**(상대 68) T: (213)215-0446
ChoonTaikLim@gmail.com

북가주 SAN FRANCISCO (Jan~Dec)

회장 | **최경선**(농대 65) T: (408)621-8080
kschoi@comcast.net
차기 회장 | **김법섭**(공 79)

샌디에고 SAN DIEGO (Nov~Oct)

김종범 (공대 83)T: (203) 909-2387
kimjongb@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회장 | **임헌민**(공대 84) T: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mrmsft@hotmail.com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회장 | **성낙길** (문리대 77) T: (217)508-8711
nsung@hawaii.edu
차기 회장 | **전수진** T: (808)956-8283
soojin@hawaii.edu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김순기(치대 82)
EricSophia@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록키마운틴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 73)
mungichoi@hot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성영주(간호대 86) T: (604)341-8808
helensungpark@gmail.com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 78) T: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yoon@hotmail.com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회장 | **용정식**(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회장 | **최진민**(공대 71) T: (617)877-0387
jinchoi52@gmail.com

미시간 MICHIGAN (Jan~Dec)

회장 | **이광진**(공 81), 248-595-2836
kmikelee@umich.edu

시카고 IL/IN/WI (Jan~Dec)

회장 | **황치룡**(문리대 65) T: (224)334-1224
chi.whang@gmail.com
차기 회장 | **조규승**(문리대 72) T: (847)922-4089
kscho@magicchef.com

뉴욕 NY/NJ (July~Jun)

회장 | **연영재** (공대 74) T: (201)233-7108
jayyeon@gmail.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회장 | **정세근**(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

커네티컷 CT

회장 | **박용해**(상대 83) T: (203)767-8187
yhptax@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회장 | **심희진**(음대 90) T: (215)206-9098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510-9196
snuarizona@gmail.com

휴스턴 HOUSTON (Jan~Dec)

회장 | **김정환**(공대 80) T: (832) 638-7194
kandc719@gmail.com
부 회장 | **김건호**(공대 91)
회장 | **kunhok@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하틀랜드 IA/MO/KS/NE/AR/OK (Jan~Dec)

임소연(음대 91) T: (785)764-6985
syounchun@gmail.com

조지아 GA/AL/MS (Jan~Dec)

배혜영(음대 79) T: (678)943-9043
lhybae@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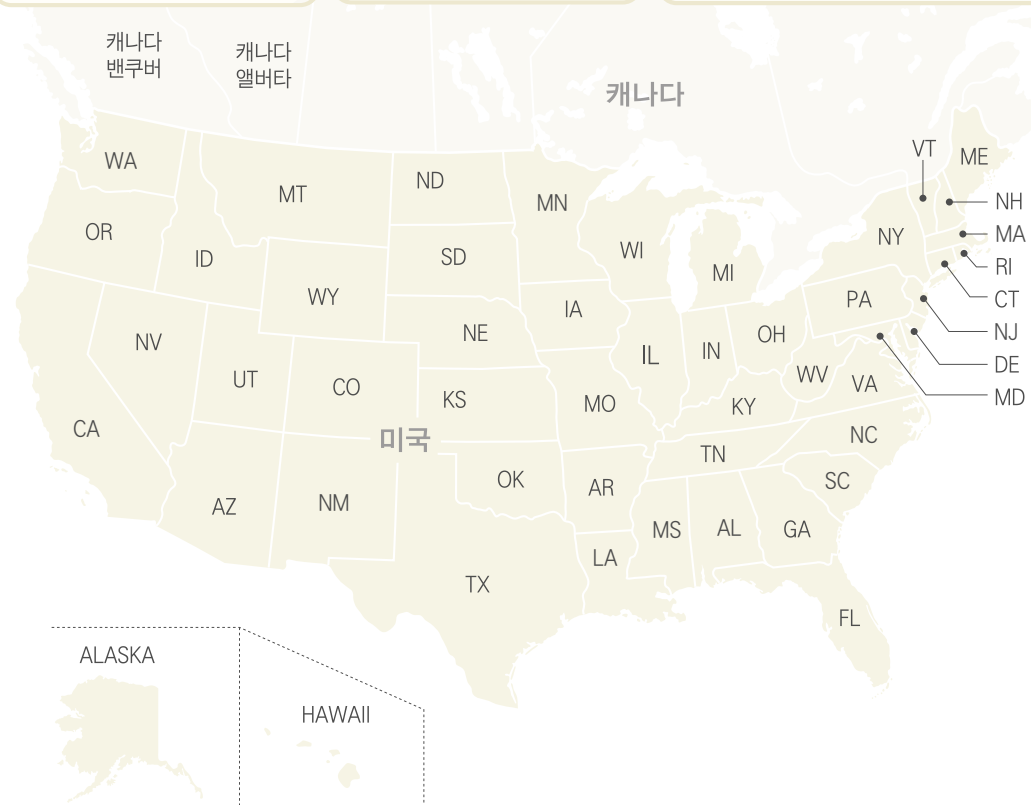
최희덕(사대 68) T: (973)610-5857
heeduklee@gmail.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테네시 TENNESSEE (Jan~Dec)

염신철(공대 98) (310) 689-6366
syecom@vols.utk.edu



since 1999 **듀오** USA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결혼해 듀오

듀오 뉴욕/LA 지사
구인광고 - 40대 영어와 한국말 필수
www.duouusa.net

LA **213-383-2525**
NY **201-947-2525**

SR WINDOW LLC
901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C. 213-700-4119 / O. 323-232-1700 Fax 323-232-4700

최고급 이중창문 3/4 DUAL GLASS
이중유리에 들어가는 Spacer, Screen Frame, Insulated Silicone 등 모든 부속은 미국 최대 Hardware maker인 C.R. Laurence Co. 제품입니다. SR의 PROFILE은 한국 LG 화학이 개발한 무공해 첨단소재를 사용했고 PATIO DOOR의 PROFILE은 독일제.

WINDOW PRODUCTION PERSONNEL WILL INSTALL IT.
IT ALSO SOLVES SENSITIVE AND DELICATE PARTS.
윈도우 제작 직원들이 설치합니다, 사공에도 섬세한 손길이 중요합니다.

J.S. LEE / SUPERVISOR / TECHNICAL COLLEGE OF HANYANG UNIV. KOREA, EXCELLENT TECHNOLOGY EVALUATION AWARD(NICE)
한양공대 / NICE 선정 최우수 기술평가

JUAN SUAREZ / MANAGER / 20 YEARS EXPERIENCED WINDOW PRODUCT

WON RYU / CEO / PH.D / FORMER RESEARCHER OF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FOUNDED SR WINDOW 199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유원(대학원·언론정보 74)

최고급 이중창문
1999.00
BIG SALE
10 WINDOWS

DUAL GLASS / VINYL FRAME
STANDARD SIZE / TOP QUALITY

NFRF MEMBER
(APPLIED FOR CERTIFICATION)

'윈도우'를 바꾸면
'마음의 창'도 열립니다

Window tells your personality

정세근(자연대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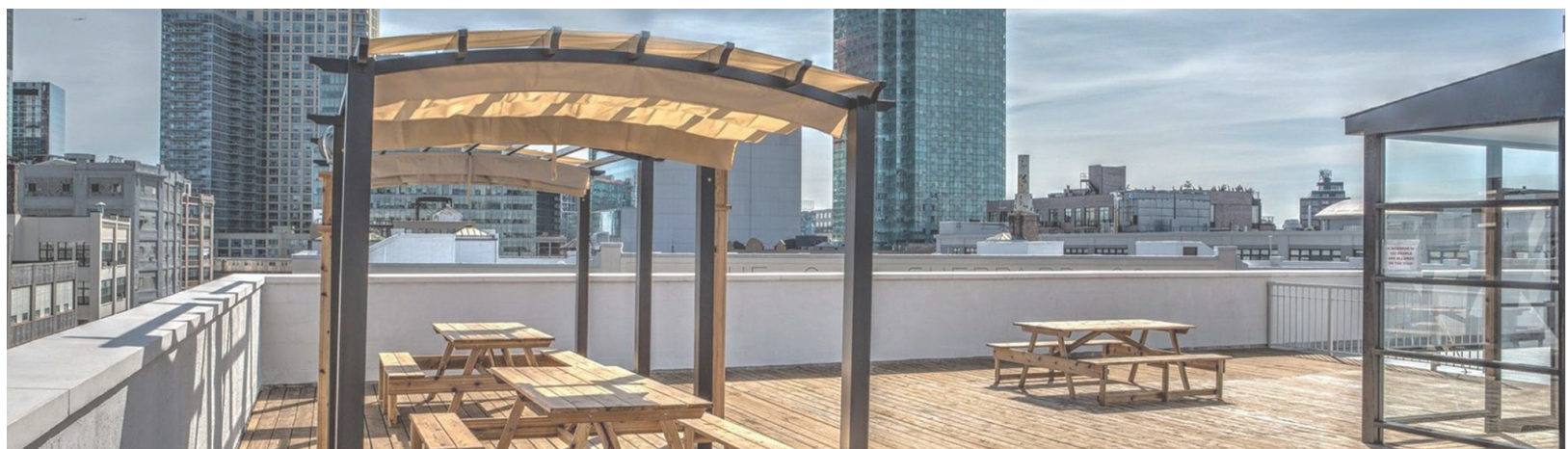
C&N 종합보험 | 뉴욕라이프

Office. 703-663-8400
Cell. 703-785-8467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김승호 (공대 71)



At LIC Hotel, we emphasize
cleanliness and comfort
above all else and strive to provide
our guests with the most convenient
experience during their visit to the
wondrous city of New York.

718-406-9788

reservations@lichotelny.com
44-04 21st St., Queens, NY 11101